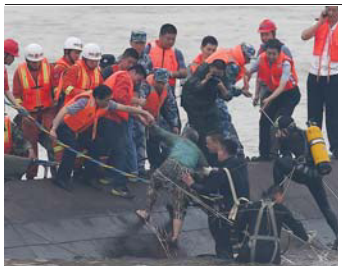


중국판 세월호, 유람선 침몰

metro®
메트로 2015년 6월 3일 수요일 제3228호 www.metroseoul.co.kr



첫 솔로앨범 들고온 '호란'

"괴담 탓이다"



늑장 대응에 또 줄줄이 희생
애꿎은 SNS에 책임 추궁
대통령은 수석회의서 한마디만

해경 다음은 질병관리본부였다. 나오지 않았어야 할 희생자가 또 생긴 것이다. 이들의 무능으로 세월호 참사 발생 후 413일째에 또 안전불감증이 도졌다. 지난 1일 첫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 A(57)씨에 이어 2일 B(71)씨가 사망했다. 우려하던 3차 감염까지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의 어이없는 대응이 사태를 자초했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다.

국가수반인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메르스 사망자 소식이 이어진 이날 남해안의 여수를 찾았다. 창조경제를 위해서다. 박 대통령은 이날 12번째로 개소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허창수 GS그룹 회장으로부터 바이오 뷰탄올을 에너지로 하는 이앙기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모두 17곳이 계획돼 있다. 박 대통령은 그 동안 빠짐없이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도 기록은 이어졌다.

청와대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개소 의의를 설명하면서 대중국 농수산품 수출 중추기지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전날 정식서명을 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계기로 대 중국 농수산품 수출이 확대될 거라는 전망도 곁들였다.

중국은 현지 출장 온 한국인 메르스 환자로 인해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 중국에서 메르스 전파국이라는 오명을 샀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환자가 나온다면 심각한 외교 분쟁으로 치달을지도 모른다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은 아직 이에 대해 말이 없다. 전례에 비추어 분쟁이 현실화된 이후 사후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선제적 대응은 메르스 괴담에 대해서만 나왔다. 공석인 국무총리를 대신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괴담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먼저 나서서 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악의적이고 잘못된 정보 유포는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관계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최 부총리가 지시를 내린 곳은 메르스 발병 이후 처음으로 열린 메르스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 장이었다. 회의는 메르스 환자가 나온 지 12일이 지나 열렸다.

이날 회의는 전날 오전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에 메르스 총력대응을 주문한 결과물이다. 메르스 첫 사망자는 수석비서관회의가 끝난 불과 몇 시간 뒤인 오후 4시께 나왔다. 이처럼 때늦은 박 대통령의 대응은 국회법 개정안과 무관치 않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등 국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데 치중했다.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정치권과의 자존심 대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한 야당 내 비판은 세간의 여론을 옮긴 수준이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을 향해 "국회를 믿고 (국회법 개정안이 아닌) 메르스에 올인해달라"며 국회의 협조를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 역시 세월호 참사 당일의 '7시간 공백'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라는 세간의 여론과 궤를 같이 한다. /송병형기자 bhsong@·사진합성

중국판 세월호… 458명 탄 유람선 침몰

초기 구조인원 파악 오보
폭우에 수색작업 어려워
현지보도 "10여명 구조"

중국 창장(양쯔강) 중류 후베이성 젠리현 부근에서 지난 1일 오후 9시28께(현지시간) 458명이 탄 유람선이 침몰해 2일 현재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사고 초반에는 외신을 통해 구조된 인원이 20여명이거나 35명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2일 오후 1시께 12명이 구조됐다는 현지보도가 나오는 등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폭우가 계속돼 수색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당국은 총력구조에 나섰지만 성과는 나오지 않아 중국판 세월호 참사가 우려되고 있다.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오후 12시45분께 선장과 기술자를 비롯한 12명을 구조했다. 이어 오후 3시께에 남성 한 명을 추가로 구조했다. 이 남성은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수색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조된 인원은 탑승 인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사고 당시 배에는 중국인 승객 406명, 여행사 직원 5명, 선원 47명 등 모두 458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나머지 승객 등의 안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인명피해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고지점은 수심이 15m가량이고 유속까지 빠르다. 여기에 기상악화까지 더해져 당국은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4시간 이상 폭우가 계속됐다는 전언이다. 사고당시에도 사이클론으로 인해 유람선이 갑작스럽게 침몰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창장은 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으로 최근 수심이 해마다 낮아져 사고 위험이 계속 제기돼 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사고 직후 국무원이 현장 지휘에 나서 인명구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리커창 총리는 마카이 부총리, 양징 국무위원 등과 함께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구조작업을 지휘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10여 척의 배를 동원하고 3000명정도의 인력을 투입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동시에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 선박인 둥팡즈싱호는 길이 76.5m, 폭 11m로 1994년 건조됐다. 정원은 534명이다. 이 배는 중국 교통부가 '부급 문명선'으로 평가한 호화유람선이다. 창장 하안도시인 난징과 충칭을 오가고 있다. 사고 당시에도 난징 우마두 부두를 출발해 충칭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현재 국유기업인 충칭동방륜선공사 소속이다.

승객들은 난징과 창저우, 상하이 등 지역 여행객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상하이 여행사가 조직한 50~80세 연령대의 노인 단체여행객도 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상하이 총영사관은 한국인 승객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윤아기자 yoona1@metroseoul.co.kr





지난 1일 밤 중국 창장(양쯔강)에서 침몰한 유람선이 2일 바닥을 드러낸 채 전복된 모습. /연합뉴스

캐나다서도 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살아있는 탄저균 배달사고가 호주와 한국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일(현지시간) USA투데이는 2명의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살아있는 탄저균이 세 곳의 캐나다 군 연구시설로도 배달됐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들은 유타주의 육군 더그웨이연구소가 캐나다의 연구소 3곳에도 살아있는 탄저균을 보냈다고 말했다. 더그웨이연구소는 살아있는 탄저균을 미국 11개 주와 한국 오산공군기지, 호주 등 24개 실험실에 보내는 배달사고를 일으킨 연구소다.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와 관련해 발표할 내용이 없으며 아직 이번 탄저균 배달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4명, 한국에서 22명 등 이번 배달사고로 탄저균에 노출됐을 우려가 있는 총 26명에게 백신과 항생제 등 사후조치가 시행됐다. 이들 중 탄저균 감염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군은 배달사고 발생 후 국내외 모든 연구소에 탄저균 표본 연구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대변인 제이슨 맥도날드는 지난 30일(현지시간) "현재 조사는 진행 중이며 조사가 끝날 때까지 더그웨이 연구소의 (탄저균)불활성화 과정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탄저균 배달사고를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책임자 문책 등을 약속했다. /송병형기자 bhsong@



2월 진수된 미 해군의 연안전투함(LCS10). 주한 미 해군사령부는 2일 '전략 다이제스트' 책자를 통해 21세기형 스텔스 구축함인 줌왈트급 구축함(DDG-1000) 등 전력을 한국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추진 중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다. /미해군 제공

해군총장에 이어 공군총장 군 검찰 입건

업무상 횡령·직권남용 혐의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이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됐다. 군은 해군참모총장에 이어 공군참모총장까지 수사 대상이 되는 치욕을 당하고 있다.

국방부는 2일 국방부 검찰단이 관련 의혹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최 총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번 감사를 했는데 감사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결국은 수사를 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서 공군참모총장에 대해서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일단은 확인 차 입건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내용(고발 내용)에 대해 검찰 수사력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공군참모총장이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된것에 대해서는 "고발해 올 때마다 어떤 직책에 있는 분이 자리를 그만둔다면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겠냐"며 "그것과는 별개로 확인절차를 수사를 통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예비역 공군 중사 윤모씨는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에 제출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윤씨는 고발장에서 "최 총장이 지난 2008년쯤 전투비행단장 재직 당시 부대 예산 37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 총장이 수도권 지역 군 관사를 수년 동안 이중으로 사용했다"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군 검찰은 윤씨를 불러 조사한 뒤 최 총장에 대한 직접 조사도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달 21일 국방부는 최 총장에 대해 감사한 결과 예산집행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엄중경고 조치한 바 있다. 엄중 경고 조치는 구두상 경고에 불과해 예정된 셀프감사 결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당시 거세게 일었다.

한편 앞서 해군은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 비리 문제로 전역했다. 황 전 총장은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황 전 총장이 옷을 벗기 직전 전임자인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도 총장 시절 방산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됐다.

/정윤아기자 yoona1@



지난 4월 21일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왼쪽)이 박근혜 대통령과 오얀타 우말라 페루 대통령이 페루 리마 라스팔마스 공군기지에서 열린 한국훈련기(KT-1P) 공동생산 기념식에서 공동 생산 훈련기 이륙을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국회 믿고 메르스에 올인 해 달라"

새정치연합 '전 국가적 총력대응' 제안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첫 사망자가 나온 다음날인 2일 오전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믿고 국회법 개정안이 아닌 메르스 문제에 올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을 향해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믿어주시고, 정말 국민이 불안해하며 공포를 느끼는 메르스 확산에 대한 걱정과 대책에 올인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 상임위는 여야가 다수·소수로 구성된 만큼 시행령 내용상(모법과의) 불일치 문제는 국회에서 충분히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견제장치가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에 앞서 방송에 출연해서도 "국회가 임의로 일방적으로 시정권을 행사해서 행정부의 권한을 혹시 방해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마주보는 기차처럼 달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국회도 잘 살펴서 거부권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새정치연합은 6월국회에서 민생에 올인하겠다"며 "국회가 정쟁으로 가지 않도록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위법적 시행령 문제도, 메르스도 모두 국회에서 민생 관점에서 풀어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도 민생에 총력을 기울이는 데에 적극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방송에서의 약속을 회의에서 실행에 옮겼다. 그는 "당 워크숍 다음날(4일) 긴급현안질문을 요청한다"며 "여당 대표와 협의해 메르스 확진에 대한 결과 보고와 대책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회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문 장관은 불참했다. 문 장관은 지난달 31일에도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보고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국회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를 요청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강 의장은 이 원내대표와 마찬가지로 "국회법 거부권 같은 것은 (내버려 두고) 메르스 사태에 (정부와 국회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 야당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미국에서 에볼라가 창궐했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유일한 환자 한 명이 나왔을 때 백악관에서 에볼라 대응팀 보고회의를 가졌다"며 "박 대통령은 메르스 환자가 18명 발생한 지금 대책회의 한 번 없이 국회와 세월호 시행령을 갖고 전쟁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르스) 총력 대응체제에 나서야 할 때에 청와대는 여전히 정치과잉이고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 역할을 대신하려 하고 있다"며 "여당 군기 잡지 말고 메르스나 막으시라"고 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전 전라남도 여수시 덕충동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가운데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바이오화학 연료를 사용하는 이앙기에 올라 핸들을 잡아보고 있다. /뉴시스

노사 배제…당정, 임금피크제 강행 방침

노동계 강력반발 예상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사 동의가 없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당정은 2일 국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노조의 동의 없이도 민간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일정 기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일자리 나누기인 워크 셰어링의 한 형태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으면서 고용도 유지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절감된 비용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최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취업의 어려움과 장년층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청년과 장년이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정년 60세 의무를 규정한 '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춰 노조 동의를 거치지 않는 임금피크제를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취업규칙 변경을 노조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유효하다고 판결한 전례가 있다. 정부가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피크제를 추진하는 근거다.

하지만 노동계 측에서는 임금피크제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이 반드시 청년 고용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사가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할 사안이라며 월권이라는 입장이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되는 재원으로 청년층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지 아닌지로 당정과 노동계 측은 날을 세우고 있다.

또 노동계는 현재 정년도 잘 안 지켜지고 있으므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임금만 삭감된다고 주장한다. 임금피크제 도입은 합법적으로 급여를 줄이는 개악이라는 주장이다.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추진과 끝없는 대치 국면에 노사정위원회를 다시 가동해 노동개혁 등 여러 의제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사정 위원회는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후 활동이 멈춰선 상태다.

/윤정원기자 garden@



KB국민은행이 임금피크 직원 및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5년 만에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KB국민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1000명과 일반 희망퇴직 대상자 4500명 등 모두 5500명 규모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지난 달 13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 달 26일부터 2일까지 일주일간 신청을 받았다. /연합뉴스

메르스 첫 대책회의 "괴담 엄정대처"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맞아 확산 방지 대책의 하나로 메르스 괴담 유포자에 대한 엄정 처벌을 경고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일 메르스 환자 발병 이후 12일 만에 처음으로 열린 긴급 관계장관대책회의에서 공석인 총리를 대신해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괴담이나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며 엄정한 대처를 관계장관들에게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로 불안감이 확산되거나 잘못된 의학정보로 상황이 악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엄정 대처를 또 다시 지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총력대응을 지시하면서 초기대응 과정에서의 정부의 잘못을 시인하기도 했다. 그는 "메르스 국내 유입 초기 단계에서 보건당국의 대응과 관리가 미흡해 정부의 방역대처 능력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밝힌 입장과 동일한 수준의 발언이다.

현재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메르스 진료병원에 관한 정보와 대처방법이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 동시에 메르스 사태를 자초한 정부의 무능에 대한 비판도 함께 확산되고 있다. 최 부총리의 메르스 괴담에 대한 엄정 대처 지시는 이 같은 국민적 비판 여론을 누르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송병형기자



대통령 비서실은 2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주재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메르스 관련 긴급 대책반'을 편성, 24시간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키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현정택 정책조정수석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이 반장을 맡는 대책반은 기획, 재난안전, 보건복지, 행정자치, 경제금융, 법무, 외교, 치안 등 관련 비서관으로 구성됐다. 사진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화 중인 현 수석(왼쪽). /연합뉴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위탁일 뿐 제공 아니다"

'고객정보 장사' 혐의 사실 재차 부인

고객 개인정보 2400만건을 보험사에 불법으로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된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가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장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홈플러스 측은 "지배관리권이 넘어가 개인정보 주체가 바뀌어야 판매라고 한다"면서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위탁한 것이지 제공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8일 열린 첫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한 실제 목적은 개인 정보를 유상 판매하려는 것이었지만 이를 고객 사은 행사로 가장했다"며 "도성환 사장이 (개인정보가) 판매될 것을 인지하고 실적을 보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 동의는 받았다. 다른 사례를 봐도 정보의 판매 여부까지 알리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홈플러스 측 변호인은 "검찰이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경품행사는 금지돼 있다'는 전제 하에 홈플러스를 기소했지만 공소장에 특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자, 검찰은 "대전제 하에 세부적 공소사실을 다룬 것"이라며 재판부에 충분한 설명을 덧붙여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검찰의 증인 진술과 수사 보고서에 대해서 부동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증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수사 보고서는 첨부 서류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지만 검찰의 추측성 의견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수사보고서에 대해 "방대한 자료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파악이 어려울까 우려된다"고 동의해줄 것을 요청하자 홈플러스 측이 다시 동의한다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앞서 지난 2월 홈플러스 법인과 도성환(60)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231억7000만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회원정보를 받은 보험사 2곳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50분간 서울중앙지법 정문과 후문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한편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50분간 서울중앙지법 정문과 후문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이달 중 피해 소비자들과 함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재판부와 양측은 내달 7일 오후 2시 3차 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단단하게 묶인 총기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사고로 3명이 숨진 가운데 14일 육군 32사단 예하 대전 유성구 예비군훈련소에서 정상적인 실탄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檢 '成비자금' 추가 포착… 정치권 유입 수사

'4차 소환' 새누리 캠프 관계자 김모씨 새벽 귀가

검찰이 경남기업의 비자금 흐름을 추가로 포착하면서 서면조사가 진행 중인 리스트에 등장한 6인이 긴장하고 있다. 정치권 유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가 이뤄지는 만큼 비자금 성격이 수사의 향방을 가를 수 있어서다.

2일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문무일 검사장)은 정치권에 제공됐을 가능성이 큰 또 다른 경남기업 비자금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 돈이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 리스트에 오른 6명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대선캠프 관계자를 강도 높게 조사했다.

특별 수사팀은 추가 비자금 조성에 대한 자료 확보차원에서 지난달 29일 경남기업 계열사 관계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경남기업에서 건설 현장 지원금(전도금) 명목으로 조성된 현금성 비자금 32억원과 성 전 회장이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계열사 출연금 등에서 만든 수억원대의 비자금을 확인한 상태다.

검찰은 현장 전도금과 서산장학재단 경유 자금, 경남기업 계열사 관련 비자금 등 용처가 불분명한 여러 갈래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서 리스트 6인의 연관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팀은 이 돈이 당시 새누리당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유정복 인천인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를 뒷받침할 단서가 있는지 찾고 있다.

검찰이 지난달 29일부터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몸담았던 수석부대변인 출신의 김모(54)씨를 사흘 연속 강도 높게 조사한 것도 같은 이유다. 지난 1일에는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했던 한모씨도 불러 조사했다. 한씨는 2012년 11월쯤 성 전 회장의 지시로 마련한 비자금은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인물이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돈이 대선캠프 지원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김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금품 흐름 정황을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김씨가 2012년 4월 총선과 지난해 7·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대 당에 공천 신청을 한 만큼 자신의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도 함께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미란기자

法, 조교에 '황산' 뿌린 교수 징역

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의 조교 학생에게 황산을 뿌린 대학 조교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흉기 등 통상적인 인명살상 도구가 아닌, 흡입하지 않으면 사망 우려가 적은 황산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주위적 혐의인 살인미수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혐의인 폭력행위처벌법상 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적용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 사법절차가 이뤄지는 곳에서 사전 계획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수차례 피부이식을 받는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변제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씨는 지난해 12월 5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 404호 형사조정실에서 자신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강모(21·대학생)씨와 형사조정 절차를 밟던 중, 농도 95% 황산 543ml를 강씨에게 뿌려 강씨와 당시 현장에 있던 형사조정위원 등 5명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지난해 6월 서류정리와 출석체크 등을 맡긴 강씨와 업무 문제로 불거진 갈등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자신이 재임용 심사에 탈락했다고 여기고 강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앙심을 품고 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홍원기자 hong@

서울 도로함몰 지도 연내 제작

서울시내 도로함몰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도로함몰 관리 지도가 제작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도로함몰 관리 지도를 만들어 12월부터 활용하기 위해 2~23일까지 도로함몰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사업자를 접수한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이달 말부터 지도 개발에 착수한다.

도로함몰 관리 지도는 평면지도(2D)로 제작된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사업'이 끝나는 2017년 이후 서울시 도로함몰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3D로 완성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로함몰 정보시스템으로 도로함몰 이력 정보 외 현재 운영하는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지반정보시스템, 지하수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도로함몰 위험 구간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송상영 서울시 도로관리과장은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도로함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홍원기자

불안 가중… "메르스 접촉병원 공개 불가피"

3차감염 중동 외 최대… 보건당국 "의료인 한해 공개"

2일 현재 정부나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접촉 병원의 메르스 환자 접촉 유무를 확인 해주거나 공개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메르스 발생 13일 만에 메르스 환자가 25명으로 늘었고 이 중 2명은 숨졌다. 게다가 3차 감염자도 발생했다. 앞으로 계속해서 메르스가 확산될 경우 접촉 병원공개는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사태가 이 정도인데 정부는 여전히 괜찮다고만 한다. 접촉병원 역시 밝힐 수 없다고 함구한다. 복지부는 매일 늘어나는 메르스 환자를 중계하기에 급급하다. 위기대응과니 중앙대책반이니 하는 메르스 관련 TF팀은 무늬만 존재할뿐 실제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언론담당자에게 전화를 아무리 해도 통화가 안되거나 어렵게 연결이 되어도 답을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3차 감염자가 발생한 현재 추가 감염자는 모두 6명으로 4명은 B병원에서 첫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 또는 가족이다. 이들은 첫 환자에게서 옮은 2차 감염자다. 나머지 2명은 D병원에 있던 16번째 환자와 지난달 28~30일 동일병실에 입원했던 환자다. 2차 감염자에게 옮은 3차 감염자인 셈이다. 더욱이 3차 감염 사례는 중동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보고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메르스 확산 공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더이상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메르스 환자들이 거쳐간 병원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복지부는 미동도 않고 있다.

2일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이름을 잘못 공개했을 경우 오해를 받거나 과도한 불안감이 생길 수 있어 전체(일반) 공개보다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에 한해 가동(공개)할 것"이라면서 "(의료인들이) 훨씬 주의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어 "아직까지는 (메르스가) 관리망 안에 있고, 지역사회로의 전파 위험은 절대 없다. 의료기관 내 감염이 머무르고 있는 상태로 본다"고 덧붙였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가 확산되는 가운데 2일 오후 중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청와대를 관람하고 있다. /뉴시스

메르스 민관중앙대책반 김우주 위원장(고려대병원 감염내과)은 "메르스 환자 접촉자수가 700명이니 900명이니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만 그 중에서 밀접접촉자의 경우에는 잠복기간에 확실한 격리를 해야 한다"면서 "현재 국가지정격리시설은 음압이 유지되는 17개 병원의 110개실이 있고 그밖에 음압이 유지가 안되는 격리시설이 500여개로 모두 600여개의 격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건당국의 발표대로 과연 3차 감염자가 확산되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환자의 접촉자가 700명에 육박한 현재 치료실과 격리실 등이 태부족인 상황에서 3차 감염자가 계속해서 발생하면 지역확산도 막기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진언이기 때문이다.

한편 메르스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메르스 경계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보건노조는 2일 '메르스 사망자 2명, 3차 감염도 현실로. 경계 단계 격상 등 범정부차원 종합대책 촉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보건노조는 "또다시 세월호 참극을 되풀이하지 말라.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가고 있다"면서 "무방비상태에서 전염병과 감염에 노출돼 있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전통 손 모내기로 풍년농사 기원 2일 전남 보성군 율어면 장동리 한 논에서 이용부 군수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풍년농사 기원 '전통 손 모내기' 재현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본격적인 농번기철을 맞아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고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방식의 손 모내기도 경험하며 올해 풍년농사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

헌재 "외국서 처벌받은 범죄, 국내재판서 반영해야"

외국에서 동일 범죄에 대한 집행을 받은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동일한 범죄로 외국에서 형 전부나 일부를 집행 받았다면 국내 법원에서도 이런 사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다.

2일 헌재는 송모씨가 형법 7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형법 7조는 범죄로 인해 외국에서 형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집행 받은 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 법원 재량으로 감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날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을 단지 법정형의 임의적 감면 사유로만 정하고 있어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법관 재량에 따라 그러한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형 감면 여부를 법관의 재량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개별 사건에 따라서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며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공익보다는 외국에서의 처벌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받게 되는 신체의 자유 제한 등 개인의 불이익이 더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 등 처벌 필요성이 강한 범죄가 있고 동일한 행위에 대해 우리 법에는 불법으로 규정된 내용이 외국법에는 없을 수도 있는 등 개별 사건에 따라 임의로 형을 감면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일선 법원에서 형 집행 정도 등을 고려해 감경을 하거나 형을 면제하기도 하는 등 해당 조항을 사안에 맞게 적절히 적용하고 있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한편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지만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이날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형법 7조에 대해 내년 12월 31일로 개정시한을 정했다. 개정 시한까지는 현재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개정시한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홍원기자 hong@

어린이집 교사 또 아동 학대

원생 포대기로 의자에 묶어 45분간 방치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어린이집 김모씨(27·여) 등 교사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교사들은 창원시 한 사립 어린이집 원생을 포대기로 의자에 묶어 수십분동안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전 10시29분쯤 자신들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펼쳐진 마술쇼 공연 동안 3살된 원생 남자아이를 의자에 앉혀 배에 인형을 끼워 놓은 후 소꿉놀이용 포대기로 묶어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마술쇼가 끝난 후 교사들은 아이가 스스로 묶인 포대기를 푼 오전 11시14분쯤까지 아이의 포대기를 풀어주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어린이집은 아이가 평소 활발해 잘 뛰어다녀 통제한다는 이유로 포대기로 묶어놨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아이를 묶어 방치한 것을 아동학대로 보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해 놓았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최종적으로 아동학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김씨 등을 입건할 방침이다.

/김서이기자 redsun217@


어린이집 안전점검 나선 이성호 차관 /국민안전처 제공

상명대, 심폐소생술·제세동기 사용법 교육

군사학과·학군단 등 재학생 대상 실습

상명대학교(총장:구기헌)는 3일 오후 1시부터 미래백년관 다목적홀에서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 교육'을 시행한다. 상명대 간호학과 교수 및 학생들이 군사학과, 학군단 등의 재학생들에게 직접 교육하고 교육참여학생들은 실습까지 실시한다.

상명대 관계자는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이야 말로 군사학과, 학군단 학생은 물론 상명대 학생 모두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치선기자

하나·외환銀 통합… 디케의 선택은?

노조 간 갈등 여전… 법원에 서면 요약서 제출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이 법과 정의의 여신인 디케(Dike)의 손에 떨어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과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에 조기통합과 관련한 서면 요약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요약서는 50~60페이지 분량으로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가처분과 관련해 쟁점이 되는 모든 사안과 주장이 포함된다.

법원은 최종 요약서를 토대로 판결을 내릴 방침이다. 결국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기통합의 향방이 갈라지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는 노사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영향을 미쳤다.

실제 노사는 2차 심리를 앞두고 노조가입과 질병 등 개인정보를 의무 제공토록 강요했다는 의혹부터 2·17합의서 수정안 반송과 관련한 첨예한 공방까지 연신 마찰되는 상황을 연출했다.

이는 이의신청 재판부가 양측에 대화를 주문한 후 발생한 것으로 노사는 서로 견해차만 확인한 것이다.

또 하나금융이 지난 2차 심리에서 '통합 시 KEB 및 외환 브랜드명 포함'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2.17 합의서 수정안을 내놨지만 노조 측이 "하나측 입장은 노조와 행명 논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하나은행 중국법인과의 합병과정에서 외환은행의 부실이 과장됐다는 주장과 직원의 사내 메일을 동의 없이 복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지에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법원은 올 초 외환 노조가 제기한 하나·외환은행 통합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외환은행 독립을 5년간 보장하는 내용의) 2·17 합의서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오랜 시간 논의와 절충을 거쳐 신중하게 작성된 것"이라며 "이를 위반해 외환·하나 간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과 합병이 완료될 경우 외환 노조로서는 더 이상 2·17 합의서에 기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춰 가처분결정을 낼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맞서 하나금융은 지난 3월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합병 중단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금융환경 변화와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두 은행 통합절차는 오는 6월 30일까지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법원이 하나금융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상황은 다시 바뀔 수 있다. 이 경우 사측의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외환 노조 관계자는 "(요약서)자료를 마지막까지 보고 있는 상태"라며 "제일 큰 변수는 이의신청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에 달렸다"고 꼽았다.

이 관계자는 "이의신청에서 가처분 결정이 뒤집힌 전례는 거의 없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당장 7월 1일부터 합병에 돌입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양행 통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테이블은 열어두고 하나금융과의 대화를 계속 할 것"이라며 "협상과 관련한 추가 제안 사항 등에 관한 입장도 하나지주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현재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라며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내리겠지만 양측 간 진솔한 대화를 계속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61



NH농협銀, 행복채움캠프 실시 NH농협은행은 지난달 30일 전남영업본부에서 'NH Family 행복채움캠프'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행복채움캠프는 영업점의 팀워크을 강화해 추진 분위기를 제고하고, 소통과 비전 공유를 통해 성과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은행 제공

IBK기업銀, 고객초청 '연평해전' 시사회

IBK기업은행은 지난 1일 서울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고객 500명을 초청해 영화 '연평해전' 시사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시사회에는 거래고객과 제작비 모금 후원자부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이광구 우리은행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김학균 금융위 상임위원, 권선주 기업은행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광구 우리은행장. /기업은행 제공

'연평해전'은 2002년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우리 해군함정과 북한 경비정 간에 발생한 해상 전투를 다룬 영화로 이달 10일 개봉한다.

앞서 기업은행은 이번 영화에 투자주관사로 참여해 총 제작비 80억원 중 30억원을 투자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연평해전은) 은행이 투자주관사로 나선 최초의 영화"라며 "국민적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작품으로, 흥행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집국장	강 세 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하나銀 고객, 외환銀서 입금 가능"

앞으로 하나은행 고객은 외환은행 지점에서 입금이나 지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문서나 전자우편으로만 가능했던 금융그룹 내 고객정보 제공 내역 통지 방법은 다양화되며 해외 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도 완화된다.

2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신한금융과 NH, 하나, KB, 메리츠, 한국투자 등 9개 금융지주회사 전략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제도 개선 방향'을 밝혔다.

이는 금융지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위는 칸막이 규제를 푸는 등 금융지주의 시너지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자회사 간에 입금·지급 업무 위탁을 허용하는 등 금융지주회사 내 업무 위탁 금지 범위는 최소화된다.

예컨대 부산·경남은행과 전북·광주, 하나·외환은행처럼 지주내 2개의 은행이 있는 경우 고객은 계열사 다른 은행 지점에서 원래 거래 은행과 마찬가지로 입금·지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이해 상충 등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계열사 간 직원 겸직도 대폭 허용한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그룹 내 자회사 간 정보 유통 규제는 합리화된다.

특히 자회사 간에 고객 정보 제공 방식은 기존의 문서나 전자우편방식에서 인터넷뱅킹 접속 때 팝업창으로 고지하는 등 고지 방식이 다양화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이 2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9개 금융지주회사 전략담당 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아울러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자금 지원이나 인력 파견 등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없어진다.

여기에는 해외법인에 신용 공여 시 담보 확보 의무를 줄여주거나 해외법인에 대출뿐 아니라 보증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밖에 핀테크와 같은 신사업 투자에 과감하게 나설 수 있도록 금융·실물 융합 업종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지주제도는 지난 15년간 양적 성장을 해왔지만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와 자회사 간 시너지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질적인 성장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내 금융지주들은 은행 이자수익에 크게 의존해 다변화된 수익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시장의 성숙과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2002년 173조원이었던 금융지주의 총자산은 지난해 1552조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4대 금융지주 이자수익 의존도는 2013년 기준 85.5%로 미국(39.1%) 등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수익성을 나타내는 금융지주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06년 16.7%, 2009년 4.9%, 2012년 7.1%, 작년 6.4%로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이에 임 위원장은 "금융지주사가 변화와 혁신에 나서야한다"며 "금융지주그룹 내 지주회사가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그룹 전략의 수립 ▲계열사간 시너지 제고 ▲통합 Risk의 관리 등을 꼽으며 "지주사가 그룹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옥상옥'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역설했다.

/백아란기자



송우 서희스타힐스
STARHILLS
포천 유일 24층 랜드마크 프리미엄!
10년만에 탄생하는 대단지 아파트 프리미엄!
포천에 없던 더 큰 품격을
송우 서희스타힐스에
드립니다!
송우중학교
포천천
주택홍보관 6월5일 OPEN
광역교통망과 뛰어난 미래가치! 포천의 진면목을 누리는 송우지구에서
1,239세대 대단지의 수준 높은 생활, 차원이 다른 프리미엄을 만납니다.
※본 이미지컷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송우 서희스타힐스
STARHILLS
최고의 입지에 걸맞는 최고의 주거타운!
태양광시스템 친환경 아파트
쾌적 프리미엄
포천천, 산정호수, 허브아일랜드, 내촌스키장 등 힐링주거환경을 갖추었습니다.
쾌속 프리미엄
구리~포천고속도로 단지에서 2Km, 43번 국도 바로 옆, 강남·동대문 방향 버스망이 탁월합니다.
생활 프리미엄
홈플러스, 이마트, 시립도서관, 생활체육공원, 각종 초·중·고교 등 생활인프라가 점점 좋아집니다.
개발 프리미엄
정자·용정·일반산업단지의 조기 준공과 포천에코그린 등 개발호재가 집중됩니다.
시행 (가칭)송우 1지역주택조합
시공예정사 서희건설
자금관리 아시아신탁
행정용역사 (주)모링가코리아 MoringaKorea Nature's Most Nutritious Superfood
주택홍보관 오시는 길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사
주택홍보관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벽산블루밍 아파트
홈플러스
상록근린공원
SK금오 주유소
경기도청 북부청사역
효자역
효자고등학교
효자중학교
의정부경전철
현장 오시는 길
태봉마을삼거리
현 장
하송우사거리
송우중학교
주공2단지 아파트
신봉초등학교
태봉공원
동남고등학교
대경중학교
문의 1600-0339

건설사 중동 리스크… 중국서 해답 찾을까

유가하락·정세불안… 올 해외수주액 전년비 28%↓
국토부, 한중FTA 맞춰 '中 진출전략' 연구용역 발주

건설업계가 또다시 중동발 리스크에 '몸서리'를 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저유가·정세불안으로 수주액이 급감한 것. 이 때문에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중국시장 진출이 대안이 될지 주목받고 있다.

◆중동 해외수주액 급감

2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건설사의 올해 해외수주액은 232억6523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 감소했다.

해외수주액 감소는 중동의 영향이 컸다. 이 기간 중동의 수주액은 68억2348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4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다. 반면 아시아와 중남미 등의 수주액이 각각 2배, 3.5배 증가했다.

전체 해외수주액 중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도 많이 감소했다. 현재 중동 비중은 29.2%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47.5%)보다 18%포인트 이상 감소한 수치다. 최근 5년간 평균 중동 수주액은 전체의 52%에 달했다.

중동의 수주 급감 원인으로는 정세불안과 저유가로 인한 대형 프로젝트의 중단이 큰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으로 140억 달러 규모의 쿠웨이트 신규 정유공장 프로젝트가 최근 발주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 정유공장의 4번 패키지는 국내 건설기업 컨소시엄들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 '제2중동붐'의 신호탄으로 주목받았다. 이 패키지에는 현대건설·대우건설·대림산업·SK건설·한화건설 등 국내 굴지의 건설기업이 참여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화사인 아람코도 라스 타누라 대형 프로젝트(20억 달러 규모)의 재입찰을 잠정 중단했다. 카타르 석유공사도 65억 달러 규모의 알카라나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중단했고, 60억 달러 규모의 교량·터널 사업인 도하 샤크 크로싱 프로젝트도 1년 뒤로 늦춰졌다.

여기에 최근 중동이 발원지로 의심받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MERS)의 공포도 확산되면서 현지 공사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조7천억 중국시장 공략 박차

중동발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중국 시장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라나라와 중국정부는 지난 1일 한·중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앞으로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 절차만 통과되면 정식적으로 한·중FTA가 실시될 예정이다. 세계 건설시장의 30%에 육박하는 약 2조7000억 달러의 현지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마련된 셈.

이에 맞물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중순 '중국 건설시장 진출전략'이라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현지제도와 환경변화가 국내 건설사들의 중국진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토부는 중국이 추진 중인 민관협력사업(PPP)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중국은 도시화 시작 이래 고속성장을 지속했지만 현재 부채가 20조 위안을 넘어서고 있어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PPP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건설기업자격기준'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건설기업자격 관리 규정'도 지난 3월부터 적용됐다. 외국계 기업들의 진출길이 열린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중동지역에 대형발주건이 많았던 만큼 해외수주액 비중도 높을 수밖에 없었다"며 "이때문에 유가하락 등 대외적인 요인에 따라 수주액의 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기업이 전세계 발주량 30%에 달하는 중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으면 중동리스크 부담을 한층 덜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여전히 현지에서 면허 취득이 어렵고 엄청난 물량과 자본력을 갖춘 중국 대형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시흥 배곧 한라비발디 청약 열기 '후끈' 경기도 시흥 배곧 한라비발디 캠퍼스2차 견본주택에 입장하기 위해 방문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배곧신도시 특별계획구역 C4블록의 '시흥배곧 한라비발디 캠퍼스2차'는 평균 1.28대 1, 최고 5.83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다. /한라비발디 제공

한화건설, 일산서 아파텔 '승부수'

한화건설이 경기도 일산신도시 킨텍스개빌지구에 선보이는 '킨텍스 꿈에그린' 오피스텔을 전용 84㎡ 단일 면적으로 구성했다. 소형아파트가 부족한 일산신도시에 아파트나 다름없는 설계를 적용함으로써 투자자가 아닌, 실수요자를 겨냥하겠다는 의도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앞서 지난해 말 위례신도시에서 '위례오벨리스크'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전체 321실의 절반이 넘는 175실에 3룸 아파트 평면을 적용했다.

최근 2~3년 사이 건설사들은 전용면적 33㎡ 이하 소형 오피스텔 공급에 열을 올렸다. 건설사는 1억원대의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자는 적은 금액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등 공급자와 수요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화건설은 위례신도시에 전용면적 85㎡ 이하 민간아파트가 없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에 소형아파트 수요자를 타깃으로 아파트 같은 3베이-3룸 오피스텔을 계획, 좋은 반응을 이끌었다.

위례신도시의 사례를 발판 삼아 일산 '킨텍스 꿈에그린' 오피스텔도 소형아파트 수요자를 타깃으로 상품을 구성했다. 780실 전부를 방 3개, 욕실 2개를 갖춘 LDK(거실-식당-주방이 연계된 구조) 아파텔 평면으로 만든 것.

특히 4베이 판상형, 가변형 벽체, 4.5m 광폭거실 등을 적용함으로써 발코니 면적을 포함한 전용면적 59㎡ 소형아파트와 비슷한 실사용공간을 확보했다. 일산신도시는 전체 5만6462가구 중 59㎡가 8.4%인 4717가구에 그칠 정도로 소형아파트가 부족하다.

대화동의 A중개업소 대표는 "2~3인 가구가 거주할 만한 소형아파트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이마저도 지은 지 15년이 넘어 2베이에 욕실 1개인 집들이 대부분"이라며 "오피스텔이지만 기존 아파트 이상으로 설계돼 문의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다만 분양가가 2억원대 후반에서 3억원대 초반으로 책정돼 월세를 통한 수익을 최대화하기는 힘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한화건설 분양 관계자는 "수익형이 아닌 거주용으로 기획된 것"이라며 "투자자가 아닌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경쟁력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pso9820@

이 달의 분양소식

대림산업 'e편한세상 삼척교동' 723가구

대림산업은 이달 중순 강원도 삼척시 교동 산 145번지 일대에 'e편한세상 삼척교동'을 분양한다고 2일 밝혔다.

삼척 신주거타운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8개동 총 723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로는 ▲59㎡ 242가구 ▲74A㎡ 113가구 ▲74B㎡ 75가구 ▲74C㎡ 71가구 ▲74D㎡ 19가구 ▲84A㎡ 168가구 ▲84B㎡ 30가구 ▲84C㎡ 5가구로 모든 가구가 중소형 면적으로 구성됐다.

이 아파트는 대림산업이 특허를 출원 중인 단열 기술이 적용된다.

집안의 모든 면에 끊김 없는 단열 설계를 적용해 열 손실을 최소화했다. 또한 모든 창호에 소음차단과 냉난방 효율이 높은 이중창 시스템을 적용한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거실과 주방에는 일반 아파트보다 2배 가량 두꺼운 60㎜ 바닥 차음재도 설치한다. 단지 내에는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독서실과 그룹 스터디룸을 별도로 설치해 자녀들이 학습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 그외에도 휘트니스센터, 북라운지 카페 등이 들어선다.



'e편한세상 삼척교동' 투시도.

모델하우스는 강원도 삼척시 남양동 343-1번지에 오픈할 계획이며 입주는 2018년 3월 예정이다.

GS건설, 역세권 '왕십리자이' 287가구

GS건설이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에서 하왕제1-5구역을 재개발한 '왕십리자이'를 이달 분양한다.

지하 4층, 지상 16~20층, 7개동, 전체 713가구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51~84㎡, 28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서울지하철 2·5호선, 분당선, 중앙선 환승역인 왕십리역이 인접했다. 또 반경 1㎞ 이내 상왕십리역, 행당역, 신당역 등 5개 지하철역이 있다. 을지로·종로·광화문 등 도심은 물론 강남과의 접근성도 좋다.

동산초(사립), 무학초·중, 성동고, 무학여고, 현대부고(자사고)와 가깝다. 성동구립도서관, 서울시립청소년수련관 소월아트홀과 같은 교육·문화인프라도 우수하다. 무학봉근린공원, 무학봉체육관, 응봉공원,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이 인접했다. 대형복합쇼핑몰 비트플렉스 이용도 쉽다.



왕십리자이 조감도.

신병철 GS건설 분양소장은 "왕십리자이가 들어서는 하왕십리는 왕십리뉴타운과 인접했을 뿐 아니라, 주변으로 도시정비사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 강북의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부상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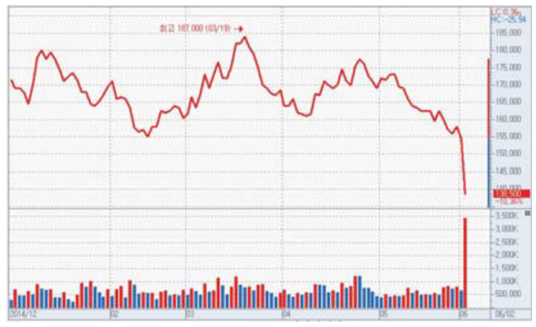
모델하우스는 6월 중순께 강남구 대치동 자이갤러리에서 오픈할 예정이며 입주는 2017년 7월이다.

성장동력 잃은 대장株 삼성전자·현대차

삼성전자
갤럭시S6 판매부진에 주가 130만원선 붕괴

현대차
엔저공습에 매도세 등 대·내외 악재 속 고전


삼성전자 주가 추이.


현대차 주가 추이. /키움증권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주식 시장에서 맥을 못 추고 있다.

삼성전자는 앞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이벤트에 삼성그룹 계열사 주가가 동반 상승하는 동안에도 홀로 하락하며 소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는 매출 감소와 엔화 약세 여파에 급락했다.

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0.93%(1만2000원) 오른 130만30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8거래일 만에 소폭 반등한 수치다. 전날에는 종가기준 129만1000원까지 떨어져 지난 1월 6일 이후 5개월 만에 130만원 선을 반납하기도 했다.

이날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2조원 넘게 줄어 190조1634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3월 18일 종가기준 150만3000원에서 두 달 보름 만인 현재까지 13.3% 역주행 했다.

현대차 주가 역시 고전 중이다.

현대차 주가는 전날 종가기준 2.22% 하락한데 이어 2일에도 10.36%(1만6000원) 떨어져 13만85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지난 3월 19일 종가기준 18만4000원에서 24.72%나 떨어진 수치다. 현재 현대차 시총은 30조5082억원으로 2위 SK하이닉스(37조2737억원)에 뒤진 3위에 올라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SK하이닉스에 7000억여원 차이로 시총 2위 자리를 내준 이후 4거래일 만에 격차는 7조여원으로 10배 가량 벌어졌다.

우선 삼성전자는 갤럭시S5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갤럭시S6마저 판매량 부진 여파를 혹독히 치르고 있다. 일각에선 갤럭시S6의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아쉽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최근에는 외신들까지 갤럭시S6 판매 부진을 꼬집고 나섰다.

지난 28일 미국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삼성전자는 현재까지 갤럭시 S6 1000만대를 출하한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작인 갤럭시S5가 같은 기간 1100만대 출하된 것에 못 미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오보'라고 일축하면서도 갤럭시S6의 정확한 판매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더불어 삼성전자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후속 합병 타자로 관심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와의 합병이 거론되는 곳은 삼성SDS다. 삼성SDS는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와 반대로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삼성SDS 주가는 지난달 초부터 현재까지 27.09%나 급등했다. 시총은 24조6835억원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6위에 올라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국면이 지속되면 두 회사의 합병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SDS 지분 11.25%(3월말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SDS의 주가 상승은 이 부회장 입장에선 합병 시 삼성전자 지분확대로 이어지지만 삼성전자 투자자들의 입장에선 주식가치가 떨어져 자칫 심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한편 현대차는 전날 공개된 현대차와 기아차의 5월 판매실적 악화 여파를 톡톡히 치렀다.

현대차의 지난달 판매대수는 38만9299대로 전년동월 대비 6.4% 떨어졌다. 기아차도 4.5% 줄어든 24만2054대를 기록했다. 더욱이 현대차는 내수 시장에 처음으로 36개월 무이자 할부 정책을 도입했음에도 판매대수는 8.2% 역행했다. 미국, 중국, 브라질 등에서의 경쟁 심화로 해외 판매도 6.2% 감소했다.

엔저 공습도 한몫했다. 이날 외국인은 현대차 주식 14만7000여주를 순매도하며 주가를 끌어내렸다.

김진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엔화 하락이 자동차 주가를 지속적으로 끌어내리고 있다"며 "엔화의 하락세가 언제 멈출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바닥 확인을 위해서는 중간배당 여부와 규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보배기자 bobae@metroseoul.co.kr

악! 메르스… '여행·항공株' 직격탄

하나·모두투어 8%대 급락 여름 관광성수기 '빨간불'

전문가 "공포 사라지면 단시일에 반등할 것"

'메르스' 공포가 국내 주식시장에까지 번졌다.

메르스 감염 공포가 연일 확산되면서 국내 여행·항공업계에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메르스 확산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여행주의 낙폭이 두드러졌다.

이날 하나투어의 주가는 전일대비 8.87% 하락한 11만3000원에 마감됐고, 모두투어 주가도 3만650원에 마감해 전일대비 8.51%나 급락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행업종이 메르스 확산 우려로 단기 실적과 주가에 영향을 받겠지만 중장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선애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여행주가 메르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공포 국면이 지나가면 단시일 내 반등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다만 전염성이 높은 질병의 특성상 사람이 많은 곳을 꺼리게 되므로 출국 수요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면서 "이 경우에도 전염병이 진정되는 즉시 수요가 회복되므로 영향은 단기적"이라고 판단했다.


메르스 감염 우려로 해외 관광객들의 방한 일정 취소가 잇따라 관광업계가 초비상인 가운데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탄천주차장에 관광버스들이 주차되어있다. /뉴시스

그는 "지난 2003년 사스와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때도 전염이 진정된 이후 출국 수요가 바로 회복된 바 있다"고 했다.

최민하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과거 사스와 신종플루, 조류인플루엔자, 에볼라 등 전염병이 창궐했을 당시에도 주가는 일시적으로 10~30% 급락했으나 단기 조정을 거쳐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현 시점에서 중동 지역을 제외하고는 예약 취소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황이 추가적으로 악화되거나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회복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실제로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5월 패키지 송출객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8%, 49% 늘어났다. 6~8월 예약률 수치도 견조하다. 따라서 메르스와 일본 지진이 여행업체의 2분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최 연구원의 설명이다.

다만 단기적인 심리 부진 가능성 등을 감안해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3분기 영업이익을 기존보다 각각 3.3%, 2.7% 하향 조정했다.

항공주에도 일제히 빨간불이 켜졌다. 대한항공(-0.64%)과 아시아나항공(-0.91%)을 비롯해 저가항공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티웨이홀딩스(-8.22%)와 AK홀딩스(-7.41%) 역시 약세를 기록했다.

문제는 최근 엔화 약세로 급부상하고 있는 '일본'이란 경쟁 상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시점상 여름 관광 최대 성수기에 진입중인 상황에서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하게 메르스 위험국으로 부상한데다 최근 엔화 약세의 힘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일본이라는 경쟁 상대가 존재한다는 점이 악재요인"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중국 인바운드 수요가 10% 감소할 경우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소비 위축효과로 연결된다"고 분석했다.

/김민지기자 minji@

SK C&C-SK 합병… 주가 날개

성장성·재무구조 안정 투자자들에 관심 집중

SK C&C와 SK가 신사업 진출과 합병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SK C&C의 주가는 27만3500원으로 마감해 전일 대비 8500원 하락했다. SK의 주가는 전일대비 6000원 내린 19만8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그러나 두 회사는 장중 52주 최고가인 28만7500원과 20만6500원을 각각 기록하기도 했다.

합병 이후 SK C&C의 성장성과 배당성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 데다 재무구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합병 호재로 SK C&C에 대한 목표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했다.

김영우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SK C&C에 대해 목표주가를 기존 32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려 잡으며 "사업형 지주사로 거듭날 SK주식회사(현 SK C&C)는 높은 성장성과 배당성향을 겸비한 주식"이라고 설명했다.

합병 후 SK C&C는 IT 서비스,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액화천연가스(LNG), 바이오·제약, 반도체 소재 등 5대 성장 영역을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신성장 동력 중 하나인 반도체 모듈 사업은 해외시장에서 오는 2020년까지 톱 3로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반도체 소재와 메모리 모듈 부문의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가시화되면 성장성 프리미엄이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합병 후 SK C&C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부채비율이 획기적으로 낮아진다는 점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김준섭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SK와 SK C&C의 합병 추진으로 인해 합병법인의 자금여력을 확보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라며 "확보된 재무안정성은 성장성과 안정성이 높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보할 수 있는 자금원으로 활용 가능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를 근거로 SK C&C에 대한 목표주가를 35만원으로 올려 잡았다.

SK C&C의 부채비율도 지난해 198.4%였지만 합병 이후 75.9%로 낮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배당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다.

김영우 연구원은 "지난해 SK와 SK C&C의 평균 배당성향은 17%로 점진적으로 30% 달성이 기대된다"고 관측했다.

한편 SK C&C와 SK는 1 대 0.74 비율로 SK C&C가 신주를 발행해 SK의 주식과 교환하는 흡수 합병을 추진 중이며 오는 8월 1일 합병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정경기자 jkljkl@

GS칼텍스 '삼남석유화학' 사실상 투자 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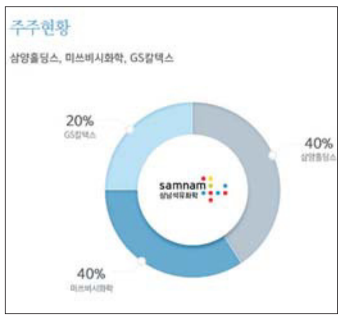
2012년부터 적자… 작년 130억 지분법손실 기록
주력제품 TPA 침체에 실적 개선 여지 '먹구름'

GS칼텍스가 '삼남석유화학'의 부진으로 영업손실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삼남석유화학은 1988년 (주)삼양사, 일본 미쓰비시 화학(주), GS칼텍스(주) 3사가 합작해 설립한 화학약품 제조회사다. GS칼텍스는 삼남석유화학의 전체 주식 288만주 중 57만6000주, 약 20%를 보유하고 있다. 장부금액상으로 533억 7000만원이 묶여있다.

삼남석유화학은 GS칼텍스의 투자기업으로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된다. 재무제표에는 지분법손익 형태로 반영된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살펴보면 삼남석유화학은 2012년 영업손실 773억9764만원으로 적자전환한 뒤 꾸준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13년 영업손실액은 794억3210만원, 2014년 역시 765억 871만원 적자가 났다.



삼남석유화학 홈페이지 캡처.

주력제품인 TPA시황 침체로 삼남석유화학의 실적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황침체는 장기화할 전망이다. 삼남석유화학은 TPA 단일제품만 생산·판매한다. TPA 시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 몇 년 사이 TPA 원료인 파라자일렌(PX)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제품마진이 크게 줄었다. 공급과잉으로 향후 TPA 시황도 어둡다.

2011년만 해도 영업이익이 1667억 587만원에 달했으나 그간 누려온 실적은 더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삼남석유화학의 당기순손실 역시 2012년 484억5846만원으로 적자전환한 뒤 손실이 이어졌다. 이듬해 당기순손실은 649억4691만원, 2014년은 손실 폭이 더욱 커진 695억9062만원을 기록했다.

기본주당 순손실은 2013년 2만2551원에서 2014년 2만4163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 한 해 GS칼텍스는 삼남석유화학과 관련해 130억5300만원의 지분법손실을 기록했다. 내부거래로 인한 손실 규모도 5억5300만원에 달했다.

/양소리기자 10sound@metroseoul.co.kr

SK, 작년 내부거래 7조 증가에 "회사분할 인한 불가피한 현상"

SK그룹은 지난해 내부거래 금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 회사분할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2일 해명했다.

SK그룹은 2014년도 내부거래 금액(47.77조원)과 비중(28.88%)이 2013년도 금액(40.52조원)과 비중(26.0%) 보다 각각 7.25조원과 2.88% 포인트가 늘었다.

이는 지난 2013년 7월 SK에너지가 인적분할을 통해 SK인천석유화학과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을 자회사로 두면서 불가피한 내부거래 금액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그룹 측은 설명했다.

회사분할은 업종전문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한 회사의 특정 사업부문을 독립시켜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회사가 분할되면 종전까지는 회사 내 사업부서 간 거래로 인정됐던 것이 내부거래로 분류된다.

이번에 늘어난 7조2500억원 역시 SK에너지 인적분할 등에 따른 자연스런 증가분이다.

SK그룹은 2007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계열사의 자율책임 경영 아래 SK이노베이션(2011년 1월), SK텔레콤(2011년 10월), SK에너지(2013년 7월) 등이 회사분할을 단행했다. /정문경기자 hm0108@

구분	회사분할 내부거래 제외시			회사분할 내부거래 포함시		
	총매출	내부거래	비중(%)	총매출	내부거래	비중(%)
2010년	112.1조원	17.4조원	15.55%	112.1조원	17.4조원	15.55%
2011년	141.5조원	20.9조원	14.76%	154.8조원	34.2조원	22.09%
2012년	141.6조원	20.4조원	14.38%	156.5조원	35.2조원	22.51%
2013년	136.1조원	20.8조원	15.28%	155.8조원	40.5조원	26.01%
2014년	138.8조원	21.4조원	15.42%	165.4조원	47.9조원	28.88%

두산, 280억 규모 연료전지 첫 공급계약

두산은 280억원 규모의 연료전지 경쟁 입찰에서 기자재 공급업체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산은 한국남동발전이 경기도 분당에 건설하는 복합화력발전소에 들어갈 연료전지 기자재를 공급한다.

두산은 높은 가동률과 안정적인 출력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고 전했다.

연료전지 운영과 관련해 400억원 규모의 장기 서비스 계약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두산이 한국남동발전 분당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공급할 연료전지 M400 모델. /두산 제공

사측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게 될 연료전지는 총 용량 5.6MW로 복층형 구조다. 복층형 연료전지는 설치면적을 절반으로 줄여 부지가 협소한 도심에서 설치하기에 좋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두산은 설명했다. /정용기기자 yonggi@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TF 가동

8월까지 기업결합 작업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작업이 본격화 된다. 양사는 임직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기업결합에 착수했다.

2일 삼성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임직원 10여 명으로 구성된 TF는 지난달 29일 서초동 삼성물산 사옥에서 1차 회의을 갖고 향후 합병에 필요한 실무작업을 논의했다.

TF는 양사에서 임원 1명씩이 파견되고 나머지는 실무 직원들로 구성됐다.

1차 회의에서는 기업결합 신고, 양사 시스템과 회계정책의 정리 등 실무적 협의를 했다. 양사는 오는 8월까지 TF를 가동해 두 기업의 결합을 위한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두 회사의 사업부문이 제일모직의 리조트·건설, 패션과 삼성물산의 건설, 상사 등 모두 네 부문으로 나뉘어 있어 기업 결합을 위해서는 정밀한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추진했다가 무산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 작업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말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지난달 26일 이사회에서 합병을 결의하고 7월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9월 1일자로 합병하기로 했다. 제일모직이 주가 비율에 따라 1대 0.35로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방식이지만 사명은 삼성의 창업정신을 승계하는 차원에서 삼성물산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서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재편되는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의 지분은 합병 전 제일모직 23.2%에서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 16.5%로 바뀐다. 통합 삼성물산의 오너 일가 지분 합계는 30.4%다. /조한진기자 hjc@

LG이노텍, 카메라모듈 누적판매 10억개 돌파

생산 10년 만에 쾌거
매출 4년째 세계 1위

스마트폰 카메라모듈 시장점유율 세계 1위 LG이노텍(대표 이웅범)이 카메라모듈 생산 10년 만에 누적판매량 10억개를 돌파했다.

LG이노텍은 지난 5월 말까지 카메라모듈 10억4000만개를 판매했다고 2일 밝혔다. 2005년 첫 출하 이후 2013년 초 5억개를 기록한 데 이어 2년 만에 5억개를 추가한 것이다.

LG이노텍은 지난해 카메라모듈 2억4000만개를 팔아 하루 66만개를 판매한 셈이다. 지난해 이 사업 매출은 2조7460억원으로 2011년부터 4년 연속 세계 1위다.

시장조사기관 리서치 인 차이나에 따르면 LG이노텍은 지난해 모바일기기용 카메라모듈 시장점유율 15.6%를 기록했다. 제품별 비중은 1분기 기준으로 800만 화소급이 81%이며, 1300만 화소 이상 고화소 제품 비중은 8%다.


LG이노텍 직원들이 카메라모듈 생산라인에서 LG전자 스마트폰 G4에 적용되는 고성능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 회사 카메라모듈은 첫 출하 10년만인 지난 5월 누적판매 10억 4000만개를 기록했다.

LG이노텍은 광주광역시, 구미, 중국 옌타이에서 카메라모듈을 생산한다. 2005년 세계 최박형 200만 화소 카메라모듈을 낸 데 이어 2007년 300만 화소, 2008년 500만 화소, 2009년 800만 화소, 2012년 1천300만 화소 카메라모듈을 선보이며 고화소 트렌드를 주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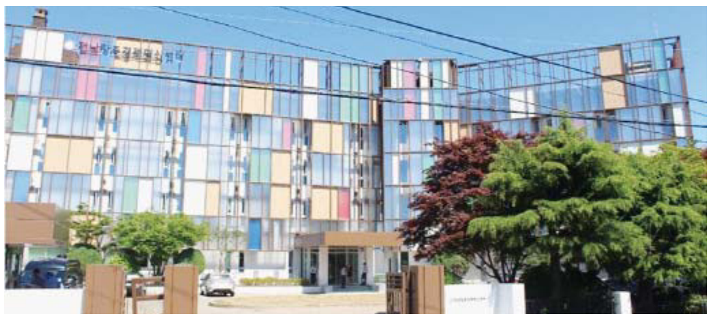
광학식 손떨림 보정(OIS) 기능을 적용해 2013년 국내 최초로 1300만 화소 OIS 카메라모듈을 양산했다. 올해는 조리개 값과 화소, OIS 모두 업그레이드한 F1.8 1600만 화소 OIS 2.0 제품을 LG전자 전략스마트폰 G4에 적용했다.

문형철 광학솔루션사업부장(상무)은 "스마트폰 카메라모듈 기술력을 활용해 차량용 등으로 적용분야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

GS "전남을 친환경 바이오산업 메카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1390억원 규모 펀드 조성
농수산·관광·바이오 육성


GS는 2일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엑스포 그랜드홀에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GS 제공

청년벤처 창업과 산업 혁신의 거점이 될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문을 열었다.

GS는 2일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엑스포 그랜드홀에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박근혜 대통령, 이낙연 전라남도지사, 허창수 GS 회장, 최양희 미래부장관,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유기준 해수부장관, 전남 지역 국회의원, GS그룹 경영진과 전남지역 중소·벤처기업인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라남도와 GS가 ▲농수산 벤처 창업·육성의 1번지 ▲청정 자연환경을 활용한 웰빙관광지 육성 ▲친환경 바이오화학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GS칼텍스가 150억원을 투자해 여수시 덕충동 GS칼텍스 밸류센터 전체를 리모델링,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최대인 2978㎡(901평) 규모로 세워졌다. 본관 1~2층은 창업지원 특화센터와 창업캠퍼스, 아이디어 상품의 시제품 제작실, 컨설팅 룸, 3~4층은 멘토링 및 보육시설로 구성돼 있다. 옥외 운동시설도 함께 구축됐다.

특히 21개실의 숙소를 갖춘 전국 유일의 레지던스 창업공간(Incu Vill)을 구비, 창업자 또는 벤처들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센터에 상주하는 멘토들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전남 서부지역을 담당하기 위해 목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1층에 목포 상담실 2개를 추가로 설치해 여수센터와 화상상담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남지역의 특화된 산업 분야에서 GS의 기술과 노하우를 결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타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창업 생태계 조성과 산·학·연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공적인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GS는 모든 계열사가 협력해 역량과 노하우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수산·관광·바이오화학 벤처 창업 활성화와 지역 친환경 농수산 기업과 지역창업·벤처·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화 자금으로 GS와 전라남도 등이 출자해 총 139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구체적으로 전남지역 농수산·관광·바이오 화학 벤처 투자펀드 150억원과 바이오화학 특화펀드 150억원, 전국 농식품 벤처 투자펀드 95억원, 전남지역 친환경 농수산 기업 융자보증펀드 75억원과 창업·중소·벤처기업 융자펀드 920억원이 조성·운영될 예정이다.

GS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으로 국가 존립의 필수산업인 농수산업을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벤처기업이 활동하는 창조경제 대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천혜의 자연환경과 편리한 교통 등으로 전남이 관광 한류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아울러 원료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을 전남지역의 풍부한 바이오자원을 활용하는 바이오화학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용기기자 yonggi@metroseoul.co.kr



1일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열린 '건설장비 50만대 생산 기념식'에서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제공

해외서 힘 받은 현대重, 건설장비 50만대 생산 돌파

올 30억 달러 매출 목표

현대중공업은 건설장비 50만대 생산 기록을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사측은 전날 울산 본사에서 '건설장비 50만대 생산 기념식'을 갖고 50만번째 굴삭기를 고객에게 인도했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50만대 생산은 1987년 첫 굴삭기를 생산한 지 28년 만에 달성한 기록이다.

1985년 건설장비 개발에 착수한 현대중공업은 1987년 426대의 굴삭기를 생산하며 건설장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이후 굴삭기 외에 휠로더, 지게차, 백호로더 등으로 생산품목을 확장했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매출 27억 달러를 달성하며 주력 사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1995년 중국에 첫 해외 건설장비 공장을 설립한 데 이어 2008년 인도, 2013년 브라질 등 해외 3개국에 5개의 생산공장을 확보하며 해외시장 공략을 강화해왔다.

또 1.6t급 굴삭기와 1.5t급 지게차 등 소형장비부터 국내 최대인 120t급 굴삭기, 30t급 지게차 등 초대형 장비까지 국내 건설장비 업체 중 가장 폭넓은 라인업을 갖췄다고 사측은 전했다.

최근에는 친환경·고효율의 차세대 HX시리즈 굴삭기 개발을 완료하고 국내·외 주요 시장에 본격적인 출시를 앞두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건설장비 분야에서 30억 달러의 글로벌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소리기자 10sound@

묘비 닦고 태극기 꽂고… 호국영령 추모

한화그룹 임직원 봉사활동

한화그룹(회장 김승연) 임직원은 60회 현충일을 앞두고 2일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 참배와 묘역관리 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참배·봉사활동에는 이선석 한화첨단소재 대표이사를 비롯해 ㈜한화 대전사업장 및 종합연구소, 한화케미칼 중앙연구소, 한화갤러리아 타임월드, 한화생명 중부본부 등 대전과 충청지역 주요 계열사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충탑을 참배한 후 결연 묘역인 사병3묘역으로 이동해 2100여개의 묘비에 태극기를 꽂으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애국정신을 기렸다.

묘비 닦기와 묘역 주변 잡초제거, 묘역에 방치된 시든 꽃들을 수거하는 묘역관리 정화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한화그룹 충청지역 연합 봉사단은 '함께 멀리'라는 그룹의 사회공헌 철학을 바탕으로 2013년 국립대전현충원과 결연을 맺은 후 결연 묘역인 사병 3묘역뿐만 아니라 무연고 묘역을 매월 방문해 정기적인 묘역관리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정필기자 roman@m


이선석 한화첨단소재 대표이사(오른쪽)를 비롯한 한화그룹 임직원은 60회 현충일을 앞두고 2일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결연묘역인 사병3묘역에서 태극기를 꽂고 비석을 닦는 등 묘역관리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화그룹 제공

한국닛산, 6월 알티마·쥬크·패스파인더 무이자할부

한국닛산은 이달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무이자 할부와 주유상품권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크로스오버유틸리티(CUV) 쥬크(사진)를 닛산 파이낸셜 서비스를 이용해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12개월 무이자 할부(선수금 50% 별도) 혜택을 제공한다.



현금 구매 고객에게는 7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증정한다.

7인승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패스파인더 구매 시 최대 170만원 상당의 주유 상품권을 증정한다.

알티마 2.5 모델과 3.5 테크 모델의 경우 닛산 파이낸셜 서비스를 통해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최대 12개월 무이자 할부(선수금 50% 별도) 혜택을 제공한다.

현금 구매 시 8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제공한다. /정용기기자

대한항공, 브라질 '골 항공'과 공동운항

대한항공은 11일부터 브라질 최대 항공사인 골 항공(Gol Linhas Aereas Inteligentes)과 브라질 정부인가 조건으로 브라질 국내선 구간의 공동운항을 시작한다. 대한항공은 현재 인천~상파울루 구간을 운항 중이다.

이번 공동운항을 통해 대한항공은 상파울루에서 리오데자네이루, 브라질리아, 마나우스 등 브라질 주요 도시들을 비롯한 총 16개 노선을 연결한다.

각 노선은 하루 한편에서 세 편까지 다양한 스케줄을 제공한다.

골 항공은 브라질의 주요 도시들을 포함해 미주 내 72개 목적지로 하루 900회 이상의 항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브라질에서 가장 많은 노선을 갖고 있는 항공사다.

스카이패스 회원이 골 항공 공동운항편을 이용할 경우 대한항공 탑승 시와 동일하게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다. /양소리기자

"자동차에 감성 입히는 여성리더 키운다"

수요일은 가족사랑의 날

연중기획 가정이 있는 직장

⑯ 한국지엠



서울 쉐라톤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지난해 열린 여성컨퍼런스에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윗줄 왼쪽에서 8번째)이 참석해 여성 임직원들과 손을 맞잡고 있다.

한국지엠이 여성인재 육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2일 사측에 따르면 한국지엠의 전체 사무직 직원 중 여사원의 비중은 2002년 8% 수준에서 지난해 14%까지 증가했다.

현재 한국지엠에는 2002년 회사 출범 첫해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850여명의 사무직 여직원들이 근속 중이다.

이들 여성 임직원은 다양한 사업부문에 근무하며 회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직장 내 성평등 증진, 여성 인력 개발 및 채용 확대를 통해 모든 직원의 잠재력 개발을 증대하고 기업에 대한 공헌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2005년 여성위원회를 발족했다.

조직 이후 여성위원회는 여성 임직원의 잠재력 개발과 기업 공헌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여성 선후배 직원 간 멘토링 프로그램, 성공한 여성 리더와의 정기적인 만남, 커뮤니케이션 스킬·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강의 등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각 부문에서 선발된 10명의 여성위원회 임원들은 △여성 인력의 공정한 인사평가와 승진 및 능력개발 기회 제공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남성 인력의 인식 변화를 통한 근무 환경 개선을 여성위원회의 우선과제로 삼았다.

여성위원회 발족 후 다양한 활동
직원 고민 나누며 해결방안 모색
네트워킹 위해 컨퍼런스도 개최

이에 여성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육아, 탄력적 근무제, 성희롱 예방 등 전 임직원이 안고 있는 고민을 나누며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여성 인력 채용 확대·제품 개발 과정에서의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이 위원회는 회사의 여성 마케팅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

한국지엠 제품 시승을 통해 디자인과 주행성능 등 제품 전반을 두루 평가하고, 차후 제품 개발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국지엠은 전체 직원 중 여성 인력 비율이 극히 낮은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인력을 자랑한다.

제너럴모터스(GM)의 전략적 여성 인력 육성 계획에 보조를 맞춰 지속적인 여성인력 지원 정책을 펼쳐 국내 대규모 자동차 제조업 분야 내 모범 사례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지엠은 여성 인재의 경쟁력과 다른 기업의 여성인재를 활용한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하면서 열린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선택했다. 바로 여성 컨퍼런스를 매년 여는 방식이다.

한국지엠은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2011년부터 매년 컨퍼런스 개최해 경력개발에 도움을 주고 임원진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여성 임직원 간의 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00여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을 포함한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다.

한국지엠은 여성 인재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현재는 여성가족부 산하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하고 있다고 사측은 전했다.

/이정필기자 roman@metroseoul.co.kr

공동기획: 여성가족부 metro

女 직원 경쟁력 향상·글로벌 인재 성장 지원



서울 쉐라톤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지난해 열린 여성컨퍼런스에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오른쪽 2번째)이 참석해 여성 임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한국지엠은 사내 여성위원회를 중심으로 2011년부터 매년 글로벌 여성 리더 육성을 위한 컨퍼런스를 열고 있다.

2일 한국지엠은 지난해 4회째를 맞은 여성 컨퍼런스는 자사가 개최하고, 여성 리더를 양성하는 모임인 사단법인 우먼인이노베이션(Women in INnovation)에서 멘토링을 재능 기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열린 지난해 행사에는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여직원 약 350명이 참석했다.

한국지엠은 한국3M, 오스템, 오토젠, 만도 등 협력업체 여직원 100여명도 함께 초청해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컨퍼런스는 '함께 꿈꾸고, 함께 성장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경력개발에 관한 특별 강의 △그룹 멘토링과 패널 질의응답 △성공한 여성 리더의 경험 공유 △소셜 네트워킹 확대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제시 등으로 구성돼 글로벌 여성 리더로 성장하는 길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성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황지나 한국지엠 홍보부문 부사장은 "한국지엠은 여성인재의 경쟁력 향상과 이를 통한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위해 매년 여성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 부사장은 "표면은 차가운 강철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감성적인 작품인 자동차를 디자인, 생산 및 판매하는 데 여성들의 세심한 감성이 특별한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지엠을 여성의 경력 개발과 인재육성의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회사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정필기자

한중 FTA 정식 서명… 업계 반응은

식품수출 '기대반' 중국산 공세 '우려반'

김치·장류·가공식품 등 수출증가·교역확대 청신호

중국산 제품 수입 확대 농어민 타격 불가피 예상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서명이 지난 1일 이뤄지면서 식품업계는 '기대반 걱정반'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불황 속 교역증대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중국산 제품 수입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식품 업계 관계자들은 "한·중 FTA가 새로운 성장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선 대표적으로 김치·장류·가공식품의 중국 수출길 활로 확보에 기대감이 높다.

대상 관계자는 "청신호를 바라보고 있다"며 "대중국 김치 수출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화된 것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김치와 가공식품에 대한 수출에 기대감을 갖고 시장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계자는 "농산물 수입이 한편으로 걱정이 되긴 하지만 14억 중국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농산물과 함께 프리미엄 가공식품을 중점으로 중국시장을 공략 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일각에선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주요 식품기업의 경우 이미 중국 현지에 대부분 제품 생산설비를 갖춰 놓았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재료를 현지 공장에서 생산·유통시켜 수출입시 붙는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값싼 원료가 들어올 수 있지만 국내 소비자들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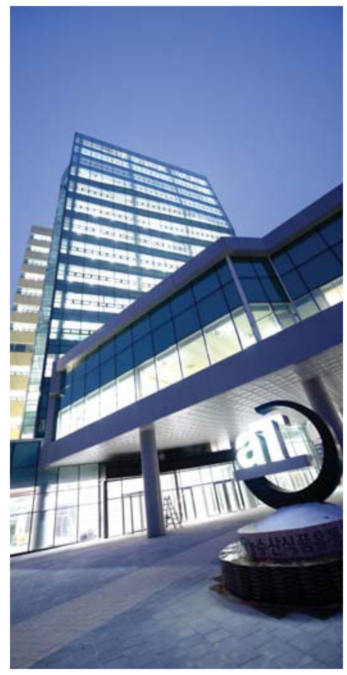
한편 농어민들의 피해는 장기적으로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농산물에서 쌀·설탕·돼지고기·쇠고기 등, 수산물에서 오징어·멸치 등 국내 20대 생산품목도 제외하면서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가깝고 가격이 저렴한 중국 농축수산물의 대량 유입 가능성이 크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는 "중국은 이미 FTA 이전부터 우리나라와 지리적 접근성과 생산품목의 유사성 등으로 국내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더욱이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국내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농민들은 사지에 내몰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납득할 만한 대책없이 다발적인 FTA 추진이 가속화됨에 따라 어업인들의 불안감과 대정부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국과 총성없는 전쟁같은 FTA경제 체제하에서 수산업이 살아남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보라기자 bora6693@metroseoul.co.kr





"손 세정제로 메르스 예방하세요" 메르스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이 마스크를 한채 손세정제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제공

무·토마토·김치 어쩌나… 농민들 울상

쌀·마늘 등 주요작물은 제외

지난 1일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윤상직·이하 산자부)와 중국 상무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함에 따라 농민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은 "FTA 전부터 우리 농산물은 중국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었다"며 "채소 등을 재배하는 농민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 측은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품목기준 농산물은 91%, 수산물은 99% 개방해 한국 농수산물의 중국진출 기회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우리 농수산 시장을 보호했다고 발표했다. 대한민국 기체결 FTA에서의 농수산물 개방 수준은 한·미 FTA의 경우 품목 대비 98.3%, 수입액 대비 92.5%였으며 FTA 평균은 품목대비 78.1%, 수입액대비 89% 수준으로 농수산시장을 개방했다.

쌀·마늘·양파·배추 등의 주요 작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돼 농산물시장의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무 등의 밭작물과 토마토나 인삼의 가공품·김치 등은 양허대상이다. 기존 세율이 정상적으로 적용됐을 때도 중국산에 가격 경쟁력에서 밀렸는데 관세까지 철폐됨에 따라 농사를 그만둬야 할 상황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에 따르면 중국산 농산물이 전체 수입농산물의 11.3%를 점유하고 있으며, 한중FTA의 관세감축이 없이도 2014년 대비 2015년 중국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피해는 연평균 5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양국이 협상을 한 농수산물은 총 1611개 품목이다. 이중 쌀·보리·마늘·양파·고추·쇠고기·돼지고기 등 전체 34%인 581개 품목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품목대비 70%, 수입액 대비 40%가 20년 내에 개방된다. /김성현기자 minus@

화장품·생활용품, 中 수출 날개 달까

업계, 향후 교류 활발 기대 관세철폐 효과는 엇갈려

지난 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양국이 정식 서명한 가운데, 화장품·생활용품·가전 등 소비재의 중국 수출에 관심이 쏠렸다. 중국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거나 이미 현지에서 인기있는 브랜드의 경우 향후 교류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반면, 관세 철폐에 대한 기대 효과는 엇갈렸다.

화장품 업계는 관세 인하에 따른 가격 경쟁력에 기대를 걸면서도 현지 생산 제품의 경우 그 혜택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현재 설화수·라네즈·아이오페·마몽드·에뛰드·이니스프리가 중국에 진출해 있으며 마몽드는 현지 생산하고 있다. 현지 생산의 경우 수출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 혜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후·수려한 등을 중국에서 판매중인 LG생활건강은 현지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FTA 발효 즉시 관세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중국 정부가 6월부터 화장품 등 일부 소비재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방침을 밝히며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현재 현지 가격 인하를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생활용품의 경우 중국 저가 상품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생활용품도 중국 수출이 활발한 상황이다. 올해 현지 법인을 세우고 본격적으로 중국 진출에 나서는 삼광글라스는 단계적 관세 철폐에 따라 향후 판매가 늘어날 전망이다.

삼광글라스 측은 "글라스락의 현재 관세가 10%인데 한중 FTA가 정식서명될 경우 단계적 관세 철폐로 가격 경쟁력이 좋아질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구입하지 않아 중국산 유리제품이 들어오더라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코트라가 발표한 1분기 한·중 무역 현황에 따르면 아로마오일과 방향제, 향료와 화장·클렌징 제품의 중국 수출액은 2억 64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89.4% 성장했다. 실제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 기업의 경우 중국 내 'K 뷰티' 열풍에 힘입어 높은 실적을 내고 있다. /김수정기자 ksj0215@

개성공단 패션기업, 연말 中 진출하나

지난 1일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하면서 개성공단 패션 기업들의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 반출된 물자를 개성공단에서 재가공한 제품 가운데 소정의 요건에 부합하면 '메이드인 코리아' 브랜드를 달고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역외가공조항이 협정문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계적인 관세 혜택, 복잡한 한국산제품 인증 절차, 한국산 제품은 비싸다는 현지 인식 등의 이유로 당장의 수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일 개성공단기업협회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 기업들은 한·중 FTA 정식 서명으로 역외가공조항을 통해 연말 중국 진출을 기대하면서도 당장의 수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관세 혜택이 당장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적게는 10년 길게는 20년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당장의 수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0년간 20% 관세 혜택이 이뤄지는 제품이 있다고 가정할 때 1년에 2% 수준으로 관세 혜택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혜가 있다고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산 원산지 인증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어 중국 진입에 다소 난항을 겪을 수 있는 부분도 지적됐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개성공단 생산품을 포함한 310개의 품목에 대해 인증 절차를 거쳐 원산지 지위가 부여된다.

개성공단 기업은 이번에 중국 진출을 처음하는 만큼 이 과정에서 모든 생산공정이 원산지에서 이뤄졌는지를 인증하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맞추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이로 인해 진입 기업이 적어지고 그만큼 수익 발생도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상길기자 sweatsk@

메르스 공포에 위생품 판매↑

손세정제·마스크 등 매출 238%나 늘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연일 늘어나고 있는 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들이 손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제공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오면서 개인위생 관리용품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예방법으로 비누나 알코올 세정제로 손을 세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아이스타일24은 메르스 관련 환자 소식이 급증한 최근 일주일 간(5/24~5/31)의 위생·청결 관련 제품의 판매량을 살펴본 결과 전주에 비해 238%나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상품별로는 가글·치약·칫솔과 같은 구강용품의 판매량이 전주에 비해 300% 급증했다. 물티슈의 경우 높은 휴대성으로 전주 동기 대비 175% 판매량이 늘었으며 소독·살균 기능이 있는 손세정제의 판매량도 98% 증가했다. 외출을 대비한 마스크 판매량도 75% 늘었다.

G마켓도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손소독제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214% 급증했다. 같은 기간 마스크·황사용품은 140%, 액상형 손세정제는 28%, 거품형 손세정제는 16% 증가했다.

11번가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손세정제와 마스크 매출을 살펴본 결과 각각 119%, 104% 늘었다.

인터파크에서도 지난달 개인위생 관리용품에 대한 매출을 조사한 결과 손세정제는 전년 동월 대비 49% 판매가 증가했으며 마스크는 72%, 구강청결제는 32% 증가했다.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손세정제가 품절될 정도로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 약국에서도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전면에 배치하는 등 메르스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아이스타일24 리빙 카테고리 최소영 상품개발담당자는 "메르스 환자가 늘어나고, 감염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개인 위생 청결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LF, 中지아만사와 '헤지스키즈' 계약

베이징 등 매장 5개 오픈 5년 내 100여개로 확대

LF는 중국 아동복 업체인 지아만(베이징 지아만 드레스)과 캐주얼 브랜드 '헤지스키즈'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현지 아동복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LF는 하반기 베이징, 상하이 등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에 매장 5개를 열 계획이다. 또 2020년까지는 매장을 100여개로 늘릴 예정이다. LF는 이 과정에서 지아만의 아동복 생산 기반 시설을 활용하고 아동복 관련 노하우도 공유할 계획이다.

오규식 LF 사장은 "헤지스키즈의 중국 진출은 향후 소비시장의 주체로 떠오를 유아동 고객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지아만과의 동반관계가 이미 중국에 진출한 헤지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LF는 2007년 라이선스 방식으로 중국에 헤지스 남성·여성라인을 수출했다. 2013년에는 국내 의류 브랜드 가운데 처음으로 대만과 태국 시장에도 진출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농후발효유, 당류 최대 3.8배 차이

농후발효유에 함유된 당류가 제품별로 최대 3.8배나 차이가 나 과다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백화점·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농후발효유 14개 제품을 선정해 영양성분 등을 분석한 결과 당류 함량이 1회 제공량(150㎖)당 5.79~21.95g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4개 제품의 평균 당류 함량은 14.52g으로, 세계보건기구(WHO) 1일 섭취권고량(50g)의 29.0%를 차지했다. 당류 함량이 높은 상위 4개 제품 평균은 20.11g으로 1일 섭취권고량의 40.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제품은 1회 제공량에 콜라 한 컵(200㎖, 당류 22.3g) 수준의 당류가 함유됐다.

소비자원은 "당이 높은 상위 4개 제품 2개를 먹으면 1일 권고량의 약 80%를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류 과다 섭취가 우려된다"며 "농후발효유 제품의 당류를 줄이기 위해 관계당국·제조사·소비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사 대상 제품의 열량은 1회 제공량 150㎖ 기준 75.3~162.5㎉로, 제품별로 크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라기자 bora6693@

시내면세점 입찰 대기업 '정서'에 호소

지역내 상생·수익환원 등 경제적·정서적 협력 꾀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에 참여한 대기업들이 사회 환원과 상생 등을 앞세우며 정서적인 면에 호소하고 나섰다.

면세사업은 일반 유통과 달리 국가로부터 특허를 받은 만큼 대기업의 경우 사회 환원이 중요하다는 국민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 면세점 후보지로 정한 지역 내 상인들과의 상생, 수익 환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2일 입찰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유통 대기업들의 경영 능력이 사실상 대동소이한 상태에서 후보지로 정한 지역과의 상생·협업·투자 등 경제적 정서적 측면이 어우러질 수 있는 기업이 많은 점수를 받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이날 면세점 사업권을 받게 되면 영업이익의 20%를 매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환원 기부금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면세점 특허기간인 5년간 300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을 위해 모두투어·엔타스듀티프리 등과 손잡고 합작법인 '현대DF'을 설립했다. 법인에 유통 및 관광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을 참여시켜 상생협력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갤러리아도 이날 서울 신규 면세점 운영 특허권을 딸 경우 면세점 설립에 1700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이 63빌딩 아쿠아리움(수족관) 리뉴얼(새단장) 등에 300억원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면세점 주변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복지관·도서관 등 비영리 사회복지 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무료지원하는 한화그룹 차원의 '해피선샤인' 프로그램을 영등포구에 집중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SK네트웍스는 후보지로 선정한 동대문 케레스타와 인근 상권을 함께 살리겠다는 의지로 4500억~5500억원에 이르는 투자계획을 공개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동대문을 패션·문화·쇼핑이 어우러진 '아시아의 브로드웨이'로 업그레이드 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탈바꿈 시킨다는 계획이다.

호텔신라는 현대산업개발과의 합작법인 'HDC신라면세점'을 세우고 용산 아이파크몰을 후보지로 선정하면서 인근 상권의 부활을 내세웠다. 200억원을 초기 자본금 1차 년도에 총 3500억원을 투자해 용산 전자상가를 일본 도쿄의 전자업체 밀집지역 '아키하바라'처럼 활성화 시키겠다는 비전이다.

롯데면세점은 중소 면세사업자인 중원면세점과 손잡고 복합면세타운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면세 복합 타운 운영을 통해 영업 노하우를 전수하고 취급 상품과 매장의 구분으로 매출 경쟁 구도가 아닌 상호 협력으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이랜드그룹은 면세점 후보지로 정한 홍대 지역 내 2만여 명의 상인들과 함께 상생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신세계그룹 후보지로 정한 본점을 통해 명동과 남대문 시장을 잇겠다는 계획이다.

업체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에 재벌가만 7곳이 입찰에 참여해 벌써부터 대기업 몰아주기냐는 식의 비아냥거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청은 중소·중견기업과 주변 상권 등 민심을 잡은 기업에 사업권을 줘 부담을 덜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21cindiun@



롯데마트 "저염 명란젓 맛보세요" 2일 롯데마트 서울역 점에서 모델들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추천한 '장석준 명장(수산제조직종 명장 1호, 고용노동부)'이 만든 웰빙 저염 명란 젓갈 2종을 선보이고 있다. 일반 명란젓의 염도가 7~15%인데 반해 장석준 명장이 만든 명란은 화학 첨가제가 없는 4% 대의 웰빙 저염 명란이다. /연합뉴스제공



테딘매필리워터파크 전경

"테딘패밀리 되세요" 회원권 분양

신규 선착순 무료숙박권 2년간 워터파크 무료 이용

테딘패밀리워터파크에서는 온가족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알뜰 회원권을 분양중이다.

테딘패밀리 워터파크는 가까운 곳에서 편안하게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인기 만점이다. 천안에 위치한 가족들의 물놀이 천국 '테딘패밀리워터파크'(이하 테딘워터파크)는 올 여름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휴식 가득한 휴가를 제공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특히 이번 회원모집에는 주목할 만한 몇가지 혜택이 있어 화제다. 2015년 신규가입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무료숙박권 10매를 증정하고 있고, 가입 즉시 온 가족이 2년 동안 무료로 워터파크를 이용할 수 있다.

테딘워터파크는 25평 개인 960만원, 법인 1100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연간 10박을 우선 예약해 준다. 가입 3년차부터 워터파크 70% 할인(2년까지 무료 이용), 식음료 10% 할인, 세미나실 50% 할인, 워터파크 회원전용 게이트를 사용하여 보다 편리하게 이용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제휴 골프장과 리조트를 회원자격으로 이용가능하다. 입회기간 개인 5년(법인 10년) 후에 전액 반환하거나, 회원 연장 가능하여 회원이 원하는 대로 선택 가능하다. 회원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는 리조트와 워터파크, 스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테딘패밀리리조트는 가족고객들을 위한 이색적인 재미를 선사하는 동화 같은 리조트이다. 서울에서 차로 한 시간대, 대전에서 40분 거리의 경부고속도로 목천IC 옆에 위치하고 있다.

/최치선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관광公 "전철타고 자전거여행 떠나자"

11일까지 체험이벤트 접수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김영호)는 코레일과 공동으로, 전철로 떠나는 자전거여행 체험 이벤트 '아빠와의 여행을 부탁해'를 진행한다.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이번 이벤트는 연초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한 국내 레저스포츠여행상품 공모전에서 제안된 '전철로 떠나는 자전거여행' 상품 홍보를 위한 것이다.

최근 지상파 프로그램을 통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아빠와 자녀간의 따스한 소통을 주제로 했다. 이벤트 홈페이지(http://www.ktoleports.com)에 아빠와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은 사연을 올리면 자동 응모된다.

추첨을 통해 총 100명이 오는 6월20일에 열리는 여행 체험 행사에 초청된다. 응모 마감은 6월11일까지이다.

20일 행사 참가자는 서울 용산역을 출발, 춘천역에 도착 후 소양호와 의암호의 자전거길 23㎞를 달리게 된다. 전철로 이동 중에는 아빠와 자녀간의 어색함을 풀기 위한 레크리에이션, 풍선아트 공연 등이 진행된다. 자전거여행 중에도 춘천애니메이션박물관 관람, 물레길 카누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 한편 코레일은 이번 행사를 위해 특별 임시열차편 8량을 제공했다.

한국관광공사 이상기 레저스포츠관광팀장은 "전철로 떠나는 자전거여행은 국민 누구나 당일 일정으로 쉽고도 저렴하게 양질의 자전거여행을 즐길 수 있는 상품"이라며 "공사는 앞으로도 자전거여행 활성화를 위한 다채로운 여행 이벤트를 기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치선기자



지난달 진행된 '전철로 떠나는 자전거여행 여행상품'.

생사 고비 넘긴 이른둥이 위해 돌잔치 열어

이화도담도담센터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료원장: 이순남)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한화생명,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와 손잡고 개원한 이화도담도담지원센터가 지난달 30일 '아주 특별한 첫돌 잔치'와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화도담도담지원센터(센터장 : 박은애)는 지난 2013년 10월 개소한 이래 국내 최초로 1.5kg 미만으로 태어난 극소저체중 출생아(이하 이른둥이)와 그 가정을 위한 통합 의료시스템을 제공해 왔다.

생사의 고비를 이겨내고 이화도담도담지원센터에서 재활치료, 언어치료, 심리상담 등을 지원받으며 성장한 아이들 중 8명의 아동이 첫 생일을 맞아 첫돌잔치를 하게 됐다.

한편 지난 2년 동안 이화도담도담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교육과 통합치료를 받아 왔던 아이들 7명도 이날 졸업해 축하를 받았다.

/복현명기자 hmbok@



첫돌잔치와 졸업식에 참석한 아이들과 부모가 행사를 마치고 이화도담도담센터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롯데 칸타타 '이하늬의 킬리만자로' 온에어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는 2일 배우 이하늬를 모델로 원두캔커피 브랜드 '칸타타'의 싱글오리진 커피 '칸타타 킬리만자로' 광고를 선보였다.

이번 광고는 칸타타 브랜드의 최초 여자 모델인 배우 이하늬가 모델로 참여했다. 새로운 원두 트렌드와 커피향을 향한 끊임없는 연구 끝에 만들어진 신제품 칸타타 킬리만자로의 특징과 '섞지 않았다! 싱글원두로 만든 균형 잡힌 바디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칸타타 킬리만자로는 시중의 로스팅 블렌디드 캔커피 제품들 사이에서 풍부한 맛과 향으로 또 한 번 앞서가는 프리미엄 싱글오리진 원두캔커피"라며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원두만의 특색 있는 맛과 향을 제대로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강강술래 "보양식으로 더위 이기세요"

14일까지 한우곰탕·갈비탕 최대 60% 할인

때이른 불볕더위와 폭염으로 냉방장치 사용이 늘면서 감기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가 보양식 파격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강강술래는 이달 14일까지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소용량 박스(350㎖·10팩)는 60% 할인된 2만5200원, 갈비탕박스(500㎖·10팩)는 50% 할인된 3만5700원에 판매한다.

곰탕·갈비탕은 레토르트(무균충전포장) 방식을 적용해 상온 보관이 가능하다. 별도의 조리과정 없이 직접 냄비에 붓고 끓이거나 봉지 째 데워 바로 먹을 수 있다.

또 캠핑이나 등산 등 아웃도어 활동 시 영양간식이나 술안주로 좋은 갈비맛 쇠고기육포박스(10봉)도 50% 할인된 3만원에 파격 할인 판매한다.

/김보라기자 bora6693@



페이볼릿, 나홀로 족 겨냥 '씻어나온 1인쌀'

페이볼릿(대표 김영석)은 '씻어나온 1인쌀'(사진)을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제품은 쌀을 직접 물에 씻지 않고 밥솥에 물만 넣어 갓 지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나홀로 족'들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대용량의 쌀을 구입한 후 오랫동안 방치하면 맛과 영양분의 손실과 쌀벌레·곰팡이 등이 발생하기 쉽다. 하지만 이 제품은 산소와 수분 차단성이 뛰어난 재질로 포장, 갓 도정한 쌀처럼 신선하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페이볼릿 관계자는 "1인 분량의 밥을 지어먹을 수 있는 1인 전기밥솥을 함께 판매함으로써 더욱 저렴하고 손쉽게 밥을 해먹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1석2조의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페이볼릿은 홈페이지에서 6월 말까지 나만의 밥 짓기 동영상 콘테스트를 진행한다.

소비자가 직접 밥 짓는 모습을 동영상에 담아 페이볼릿몰 게시판에 올리면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페이볼릿몰 포인트와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metro entertainment E

“노래의 해석은 듣는 분께 맡길게요”

데뷔 11년 만에 첫 솔로앨범

클래지콰이 **호 란**

인터뷰어(기자)의 질문에 답변만 하는 인터뷰이(아티스트)도 있지만, 반대로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다. 가수 호란(본명 최수진)은 단연 후자다. 그는 기자에게 적극적으로 반문하고 오프더레코드도 적절히 사용하며 자신의 음악 세계를 얘기했다.

◆ 괜찮은 여자

일렉트로닉 그룹 클래지콰이와 어쿠스틱 프로젝트 그룹 이바디의 보컬이었던 그는 지난달 첫 솔로 EP 앨범 '괜찮은 여자'를 발표했다. 가수로 데뷔한지 11년 만의 일이다.

“순수하게 음악 작업만 한 것을 따지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지난해 1월 프로듀서 지쿠 씨를 만나 기타 레슨을 받았는데 같이 지내보니 음악 취향도 맞더군요. 그래서 내 앨범에 참여해달라고 했죠. 단순히 앨범 트랙 작업만 한 게 아니라 함께 클럽에서 공연도 하며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그 경험이 이번 솔로 앨범 중 가장 기쁜 순간이었어요.”

의상·가발 직접 쇼핑하고 제작 오랜기간 생각해 온 것들 표현

앞서 언론을 통해 이번 신곡은 '괜찮은 척 하는 괜찮지 않은 여자'라고 알려졌지만 그는 타이틀곡을 비롯해 수록곡에 대한 그 어떤 부연 설명도 원치 않는다고 했다.

“노래 가사와 뮤직비디오를 두고 많은 해석이 나오더군요. 제 노래지만 그 속의 의미나 해석은 청자들에게 맡기고 싶어요. 클래지콰이로만 절 접했던 분들은 이번 앨범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죠. 그건 제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 같아요.”

호란은 2012년에 멤버들에게 솔로 앨범을 내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클래지콰이는 굉장히 자유로운 팀이예요. 멤버 알렉스도 솔로 앨범을 냈기 때문에 서로 거부감도 없죠. 다만 많은 사람들이 '뭐 하러 솔로를 하느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겁도 나구요.”



◆ 호란을 바라보는 방법

순수하게 곡 작업만 한 기간은 4, 5개월 정도지만 그가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던 것들을 담았다.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의상이 실제로 제 옷이에요. 검정색 원피스는 SPA 브랜드에서 5만원 주고 산 거 예요. 가발 염색도 직접 미용실 가서 상담 끝에 완성한 거고요. 회사에 영수증 처리도 안 했어요(웃음). 한복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구현하는 게 제 오랜 꿈이었죠. 2008년에 제가 쓴 수필집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묵혀놨던 아이디어를 첫 솔로 앨범에서 실현한 셈이죠.”

앨범 커버는 동양화가 신주은 작가의 작품이다. 호란은 신 작가에게 특별히 목련을 그려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목련은 제게 중요한 꽃이에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쓴 시의 주제가 목련이었다고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아주 어릴 때, 제가 떨어진 목련을 보고 시를 썼대요. 뭐랄까, 제게 처음으로 영감을 가져다 준 꽃이죠. 너무 갖다 붙이는 것 같긴 하지만(웃음). 항상 제 정서를 자극하는 꽃이에요. 벚꽃이 화려하고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가졌다면 목련은 단아하면서 퇴폐적인 느낌을 주죠. 처연한 느낌도 있고, 항상 정이 가요.”

이처럼 앨범의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그의 아이디어가 녹아들었다.

“앨범 커버에 열쇠구멍도 그려져 있는데요. 이건 핍홀(Peephole)이에요. 안에서 밖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여러 의미를 주고 싶어요. 호란이란 가수가 처음으로 닫힌 문을 열고 나온다는 의미도 있고요, 바라봐지는 존재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고요. 열쇠는 커버 뒤에 숨겨뒀어요.”

아주 작은 부분까지 의미가 숨어있는 데 과연 그걸 아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지적에 그는 “창작자라면 대부분 경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애시당초 이해를 바라고 만들면 어렵죠. 창작자가 숨겨둔 의도를 다 읽어내는 감상자는 정말 극소수니까요. 물론 누군가 알아채 준다면 기쁘긴 하겠지만요. 그냥 '호란이 지금 하고 싶었고, 할 수 있던 작업이 이겁니다'라고 말하고 싶네요.”

/김지민기자 langkim@metroseoul.co.kr

star bag

국민MC 종편 첫 출연



국민MC **유재석**이 종합편성채널로 활동 영역을 넓힌다.

JTBC는 2일 유재석이 오는 8월 방송 예정인 새 파일럿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나선다고 밝혔다. 아직 유재석만 섭외된 상태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커피소년과 콜라보레이션



가수 **이지혜**가 커피소년의 콜라보레이션곡 '아니 그거 말고' 티저 이미지를 2일 뮤직웍스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됐다.

커피소년이 작사·작곡·편곡까지 참여해 곡의 완성도를 높였다. 오는 12일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발매될 예정이다.

프리랜서 선언



방현주 아나운서가 18년간 몸담은 MBC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프리랜서 활동과 중국 비즈니스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방현주 아나운서는 1997년 MBC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해 '신입사원', '토크쇼 미인도' 'FM 모닝쇼' 등에 출연했다.

새 소속사 '구'에 둥지



개그맨 출신 배우 **김진수**가 매니지먼트 구에 새 둥지를 틀었다.

김진수는 그동안 드라마와 영화는 물론 연극과 뮤지컬까지 종횡무진하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 드라마 '꽃할배수사대' '맏이', 영화 '마마' 등에 출연했다. 현재 연극 '취미의 방'을 공연 중이다.




김소현·도경수 입맞춘다

영화 '순정'으로 조우

배우 김소현과 그룹 엑소 멤버 도경수가 영화 '순정'에서 만난다.

'순정'은 음악 라디오 생방송 도중 23년 전 과거에서 온 편지를 통해 현재와 과거를 넘나드는 애틋한 첫사랑과 다섯 친구들의 지극한 우정을 그리는 영화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출신 이은희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다.

도경수는 영화 데뷔작 '카트'와 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로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김소현은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후아유-학교2015'에서 청순한 얼굴로 1인 2역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영화에서 두 배우는 애틋한 첫사랑을 연기한다.

제작은 '아내가 결혼했다' '관상' '내 심장을 쏴라'의 주피터필름이 맡는다. 조연급 캐스팅을 마무리한 뒤 6월 말 전남 고흥에서 100% 올로케이션으로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공식대로 풀어낸 뻔한 재난영화

film review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 샌 안드레아스




재난영화를 볼 때마다 양가적인 감정이 든다.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재난 상황을 재현한 스펙터클한 영상은 그 자체로는 시각적인 놀라움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그 스펙터클을 마냥 즐기기에는 마음이 불편하다. 재난 속에 참혹한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난영화는 몇 가지 '꼼수'로 이런 양가적인 감정을 숨긴다. '포세이돈 어드벤처' '타이타닉'처럼 재난에 처한 인물의 드라마를 강조하는 방식도 그 중 하나다. 혹은 '2012'처럼 물량공세로 만들어낸 재난의 풍경만을 보여주는 방법도 있다. 이런 영화에서는 재난의 속살을 보여주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조차 순식간의 일로 묘사할 뿐이다.

'샌 안드레아스'에서도 이와 비슷한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다. 미국 서부를 강타한 대지진 속에서 딸을 구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를 떠나 샌프란시스코에 온 주인공 레이

눈 뗄 수 없는 거대한 스케일에 비해 스토리는 빈약

(드웨인 존슨)와 엠마(칼라 구기노) 부부는 지진과 쓰나미로 폐허가 돼버린 시내를 돌아다니며 딸을 찾는다. 그런데 이 장면은 왠지 모르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 엄청난 재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이들 주변에는 안타깝게 죽은 이들의 시체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영화의 설득력을 해칠 정도로 낯선 풍경이다.

재난의 스케일만 놓고 본다면 '샌 안드레아스'는 여느 재난영화에 뒤지지 않는다. 후버 댐이 무너지고 로스앤젤레스 전역이 흔들리며 금문교가 무너지고 폐허로 변해가는 샌프란시스코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좀처럼 눈을 떼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재난의 스케일에 비해 인물들의 드라마는 다소 빈약하다. 재난 속에서 관계를 회복해가는 가족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새로움을 찾기도 힘들다. 구조대원인 주인공이 가족을 구한다는 이유로 구조 헬기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처럼 납득하기 힘든 설정도 눈에 밟힌다.

이는 '샌 안드레아스'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재난영화라는 장르는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어쩌면 영화는 그것을 알기에 그저 공식대로 이야기를 풀어냈을지도 모른다. 아무 생각 없이 즐길 수 있는 재난영화. '샌 안드레아스'의 목표는 딱 여기까지다. 12세 이상 관람가. 6월 3일 개봉.



김동욱 코믹연기 도전

영화 '쓰리 썸머 나잇'

배우 김동욱이 전역 후 첫 영화인 '쓰리 썸머 나잇'으로 생애 첫 코믹연기에 도전한다.

'쓰리 썸머 나잇'은 화려한 일탈을 꿈꾸며 해운대로 떠난 세 친구가 3일 밤 동안 겪는 해프닝을 그린 코미디 영화다. 김동욱은 번번이 시험에 떨어지는 만년 고시생 명석 역을 맡았다.

드라마 '커피프린스 1호점'과 영화 '국가대표'로 존재감을 남긴 김동욱은 전역 후 복귀작으로 드라마 '하녀들'을 선택해 열연을 펼쳤다. 전역 후 첫 영화인 '쓰리 썸머 나잇'에서는 이전에 보여주지 않았던 코믹한 변신을 선보인다.

김동욱은 "장르가 코미디인 작품은 처음이다. 한번쯤 꼭 해보고 싶은 장르였고 재미있는 작품을 즐겁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화에는 김동욱 외에도 임원희, 손호준 등이 출연한다. 오는 7월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진짜 기자했으면 잘 했을 것"

김옥빈 영화 '소수의견'서 열혈 기자 변신

배우 김옥빈이 영화 '소수의견'(감독 김성제)을 통해 열혈 기자 캐릭터를 연기한 소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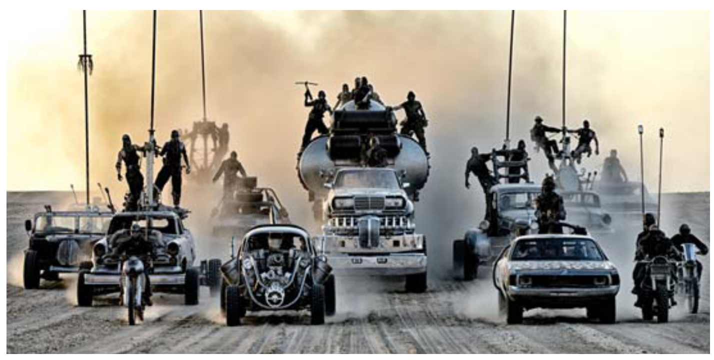
2일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김옥빈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못 참고 끝까지 집요하게 파헤치는 성격이다. 어렸을 때 진로를 기자로 정했다면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번 영화에서 김옥빈은 철거현장에서 벌어진 죽음에 의문을 품고 취재에 나서는 열혈 사회부 민완기자 공수경을 연기했다. 그는 "공수경의 실제 모델인 기자를 만나 많은 것을 물어봤다.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밝혔다.

기자 캐릭터 표현을 위해 의상과 메이크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김옥빈은 "수더분하게 하려고 했다. 노메이크업까지는 아니어도 BB크림 정도만 바르고 촬영했다"며 "예쁘게 꾸민 기자들도 많지만 나는 기자의 이미지를 뻔하게 표현한 것 같다"고 웃었다.



'소수의견'은 강제철거현장에서 일어난 두 젊은이의 죽음을 둘러싸고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100원짜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변호인단과 검찰의 진실 공방을 그린 법정 드라마 영화다. 김옥빈과 함께 윤계상, 유해진, 이경영, 장광, 김의성, 권해효 등이 출연한다. 오는 25일 개봉 예정. /장병호기자



'매드맥스4' 19일만에 300만 돌파

예매율 2위 흥행 파워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가 개봉 19일 만인 지난 1일 3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개봉 19일 만인 지난 1일까지 누적 관객수 301만833명을 기록했다.

특히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개봉 첫째 주 주말 70만여 명, 둘째 주 주말 67만여 명에 이어 셋째 주 주말에도 58만여 명의 관객을 모으며 매주 거의 변동없는 관객 추이를 보이고 있다. 개봉 4주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샌 안드레아스'에 이어 실시간 예매율 2위를 기록해 변함없는 흥행 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수입배급사 워너 브러더스 코리아 측은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의 흥행 원동력은 단연 관객들의 입소문"이라며 "관객 평점에 있어 남녀노소 편차 없이 고른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병호기자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디판' 하반기 개봉

올해 제68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 '디판'이 하반기 국내 개봉을 확정했다.

'디판'은 프랑스로 망명하기 위해 신분을 위조해 가짜 가족이 된 두 남녀와 한 소녀의 이야기다. 일면식도 없던 사람들이 낯선 프랑스에서 함께 지내며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하는 과정을 담았다.

영화를 연출한 자크 오디아르 감독은 '예언자'로 2009년 칸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했다. 마리옹 꼬띠아르가 주연을 맡은 '러스트 앤 본'도 2012년 칸영화제에서 상영돼 호평을 받았다. /장병호기자



세븐에이트
동성제약
좋은 건...
그냥 좋은 거잖아요?
"전, 오늘 세븐에이트 해요"
세븐에이트 전속모델 I 탤런트 차 화 연
편하고 부담없이 자연스러운 느낌 – 세븐에이트
새치커버는 물론 스타일리시한 헤어컬러까지~ 최신 트렌드에 맞는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로 아름다움을 찾아드립니다.
4호 (자연스런 밤색) 5호 (진한밤색) 6호 (자연스런 갈색) 7호 (자연스런 흑갈색)
스타일에 따라 용도에 맞게 골라 쓰세요
I 세븐에이트 헤어 마스카라 I 세븐에이트 무향료 칼라크림 I 세븐에이트 편한염색
I 세븐에이트 실키 칼라크림 I 세븐에이트 쉬운염색 I 세븐에이트 흑채 커버 스프레이
I 소비자상담실 I 080–547–3571 I 세븐에이트는 가까운 약국, 마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최강 아이돌' 엑소, 빅뱅과 맞붙는다

오늘 정규 2집 발표… YG·SM 빅매치로 기대치 상승

남자 아이돌 그룹 엑소가 컴백하면서 빅뱅과의 빅매치를 앞두고 있다.

어마어마한 팬덤을 자랑하며 한류의 중심에 있는 이들의 대결은 대중의 큰 관심사다. 특히 YG엔터테인먼트를 대표하는 빅뱅과 SM엔터테인먼트의 떠오르는 엑소의 선두다툼은 가히 볼만한 무대다.

엑소는 3일 0시에 기존 정규 2집 수록곡 10곡에 타이틀곡 '러브 미 라이트(LOVE ME RIGHT)'를 포함한 신곡 4곡까지 총 14곡이 담겨 있는 리패키지 앨범 'LOVE ME RIGHT'를 내놨다.

앞서 빅뱅은 2일 0시에 프로젝트 앨범 A의 신곡 '뱅뱅뱅(BANG BANG BANG)'과 '위 라이크 투 파티(WE LIKE 2 PARTY)'를 공개했다. '뱅뱅뱅'은 공개되자마자 음원차트를 점령했다. 지드래곤은 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머어머 굿밤"이라는 글을 올렸다. 앨범 A의 수록곡 '뱅뱅뱅' 'WE LIKE 2 PARTY'와 5월 1일 발표한 앨범 M의 수록곡 '루저(LOSER)' '배배(BAE BAE)'가 음원차트 1~4위를 나란히 차지한 모습을 공개하며 자축했다. '뱅뱅뱅'은 파워풀한 댄스곡으로 강렬한 비트와 재치 있는 가사가 인상적이다.

빅뱅은 매월 M, A, D, E 프로젝트 앨범을 발표하고 있다. 'MADE'는 오는 9월 완성된다.

3일 발매되는 엑소의 정규 2집 리패키지 앨범 'LOVE ME RIGHT'는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기획한 앨범이다. 그 중에서 펑키한 리듬, 밝은 느낌의 타이틀곡 'LOVE…'의 악기 섹션이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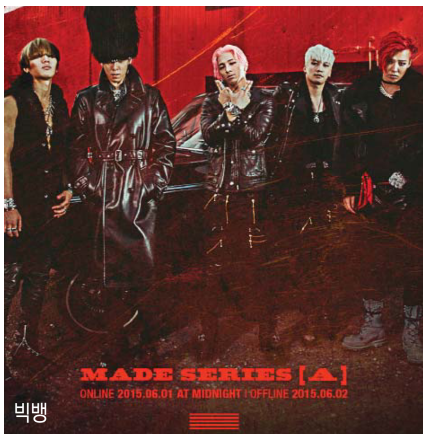
살짝 공개된 'LOVE ME RIGHT'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에는 멤버들이 미식축구 선수로 분해 그 자체로 박진감을 안겼다. 또 무거운 비트로 엮인 화면 배치로 풀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 곡부터 9인 체제로 활동하는 엑소의 새로운 모습에도 관심거리다.

엑소는 4일 Mnet '엠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5일 KBS 2TV '뮤직뱅크', 6일 MBC '쇼! 음악중심', 7일 SBS '인기가요' 등 각종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김숙희기자 sookinala@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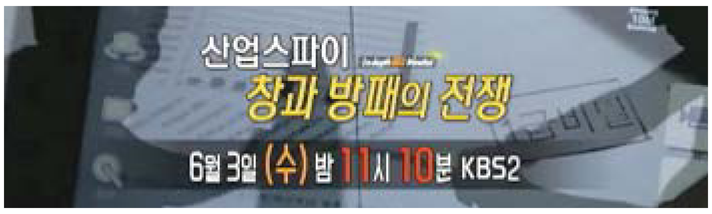


엑소



빅뱅

TV 하이라이트



산업기술 유출 실태 고발

◆ KBS2 '추적60분' 오후 11시 10분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술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면서 기술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첨단 산업 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기업 간의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은 실제 전쟁을 방불케한다. 오랜 시간 일구어 온 기업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산업 기술 유출의 실태를 알아본다. 피해자들의 사례와 진솔한 심정이 공개된다.

◆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

오후 11시15분

'음색깡패' 특집이다. 데뷔 30주년을 맞이한 가요계의 대부 이승철, 맷돌 돌리기 창법의 정엽, 허스키 음색의 디바 거미, 솔로 앨범으로 음원 차트 고공행진 중인 인피니트 성규가 출연한다.



◆ JTBC '크라임씬2'

오후 11시

'교차로 살인사건' 편이다. '아시아의 별' 보아가 추리에 도전한다. 사회 문제 이슈 담당 일간지 기자가 새벽에 시체로 발견된다. 탐정은 정황과 범인을 밝히기 위해 5명의 용의자를 소환한다.



◆ MBN '나는 자연인이다'

오후 9시 5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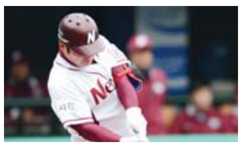
21년째 산속 낙원을 가꾸는 자연인 김영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하며 정치의 꿈을 키워나가던 중 생각지 못한 일로 10년이 넘는 정치 인생을 마감하고 산속으로 들어왔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일 (수)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53회) 05 코코몽 3 25 꼬마 철학자 휴고 45 동생이랑 나랑 (14회)	00 하늘 놀이터 (재) 25 Real Fun World (재) 30 출동! 슈퍼윙스(영어·한국어) (재) 50 Real Fun World2 (재) 55 시계마을 티키톡!(영어·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30 인순이의 토크 드라마 그대가 꽃	50 오늘부터 사랑해 (43회)	15 불굴의 차여사 (104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달려라 장미 (121회)	00 곤 30 EBS 뉴스 50 사선에서	25 내 친구 아서(영어) (재) 35 Real Fun World3 (재) 40 내 친구 아서(한국어) (재) 50 두키 탐험대(영어)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18회)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15회) 55 비타민	55 딱 너 같은 딸 (13회)	00 SBS 8 뉴스 55 영재발굴단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4 (재) 10 두키 탐험대(한국어) 20 스쿨랜드 (재)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 프라임	00 다큐 오늘 10 EBS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생로병사의 비밀 55 국민대합창 우리가	00 복면검사 (5회)	00 맨도롱 또똣 (7회)	00 가면 (3회)	45 극한 직업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나바론 요새>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빅뱅 더 콘서트	10 추적 60분	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5 한밤의 TV연예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50 동행 (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스페셜	35 MBC 뉴스 24 5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35 나이트라인	05 지식채널e (재) 10 한국영화특선 <미술관 옆 동물원>	30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냉장고를 부탁해 (29회) (재)	20 집밥 백선생 (3회) (재)	30 마트를 헤매는 당신을 위한 안내서 (3회)		50 미션 임파서블 2	 ◆ 프로야구 18:30 한화 vs넥센 (SPOTV+) SK vs KT (MBC SPORTS+) KIA vs 두산 (SKY SPORTS) 롯데 vs 삼성 (SBS SPORTS) LG vs NC (KBS N SPORTS)
19시	40 연금복권 520 (205회) 55 JTBC 뉴스룸	40 명단공개 (65회) (재)	00 맛있는 19 (5회) 30 식샤를 합시다 2 (13회)	00 쇼킹 70억 (11회)		
20시	50 JTBC 뉴스룸	40 강용석의 고소한 19 (135회)	45 식샤를 합시다 2 (14회)	00 기생PARASITE 3부 대결에서 공존으로		
21시	40 유자식상팔자 (104회)	40 수요미식회 (19회)		00 <와일드 스리랑카>2부	20 셔터 아일랜드	
22시			00 올리브쇼 2015 (19회)	00 눈 앞에 다가온 대재앙: 초대형 쓰나미		
23시	00 크라임씬 2 (9회)	00 고교10대천왕 (6회)	00 2015 테이스티로드 (18회)	00 <전쟁의 대가들> 쿠르스크 전투: 만슈타인 vs 쥬코프		
24시	4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스페셜 (17회)	20 강용석의 고소한 19 (135회) (재)	00 한식대첩 3 (2회)	00 서바이벌 알래스카3 (7회)	00 도희야	

불혹 앞둔 임창용, 최고령 구원왕 도전

'미스터 제로' 13S 단독선두… 5월 평균자책점 '0'

불혹을 앞둔 삼성 라이온즈의 구원투수 임창용(39)이 최고령 구원왕에 도전한다.

임창용은 5월 한달에만 9경기에 등판, 7세이브를 거뒀다. 12세이브를 기록중인 윤길현(32·SK 와이번스)을 1세이브 차로 제치고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다.

임창용은 4월까지 11차례 등판해 2패 6세이브를 기록했다. 평균자책점은 5.91이었고 두 차례 블론 세이브도 당했다. 피안타율 역시 0.268로 다소 높았다. 하지만 5월 들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7번의 세이브 기회를 모두 살렸고,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았다. 피안타율도 0.172로 낮췄다. 5월 평균자책점은 '0'다.

LG 트윈스전 징크스도 완전히 털어냈다. 임창용은 올 시즌 등판한 20경기 중 LG와의 2경기에서만 실점했다. 4월 5일 잠실 LG전에서 ⅔이닝 3피안타 2실점으로 무너져 팀의 5-6 끝내기 역전패의 장본인이 됐다. 4월 28일 대구 LG전에서도 ⅔이닝 4피안타 5실점을 기록하며 패배했다.

그러나 5월 29일 잠실 LG전에서 1이닝을 무피안타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틀어막았고 30일에는 2사 만루에 몰렸지만 김용의를 삼진 처리하며 세이브를 추가했다.

임창용은 지난해 31세이브(5승 4패)를 올려 손승락(32세이브)에 이어 아쉽게 구원왕을 놓쳤다. 높은 평균자책점(5.84)과 블론 세이브도 9개나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는 안정감을 보이고 있다. LG전에서 두 차례 대량 실점한 탓에 평균자책점(3.26)은 다소 높지만 0.867의 세이브 성공률을 기록했다. 피안타율(0.229)과 이닝당 출루허용(0.98)도 지난해(피안타율 0.282, 이닝당 출루허용 1.59)보다 좋다.

임창용이 이번 시즌 구원왕에 등극하면 역대 최고령으로 기록된다. 지금까지 한국 프로야구 구원왕은 모두 33세 미만이었다. 1995년 선동열과 2003년 이상훈과 조웅천, 지난해 손승락이 만 32세에 구원왕 타이틀을 차지했다. 임창용은 22살이던 1998년 해태 타이거즈에서 구원왕에 올랐고 이듬해 삼성으로 이적해 다시 한 번 구원왕이 됐다. 28살이던 2004년에도 마지막으로 구원왕에 올랐다.

/하희철기자 bbuheng@metroseoul.co.kr



29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LG와 삼성의 경기에서 9회말 삼성 마무리 투수 임창용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UEFA, 월드컵 보이콧 대신 FIFA 집행위 사퇴

블라터 회장 연임 반발

제프 블라터 회장의 FIFA 회장 연임에 반발한 유럽축구연맹(UEFA)이 월드컵 보이콧 대신 집행위원회 사퇴를 선택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지는 1일(현지시간) UEFA가 월드컵을 보이콧 하지는 않고 집행위원회에서 사퇴하는 쪽으로 반대운동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UEFA 긴급 집행위원회는 블라터 회장 재선 후 이를 논의한 바 있다. UEFA의 플라티니 회장도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시사했다. 그러나 월드컵 보이콧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월드컵에 대항할 국제적인 축구대회로 유럽과 남미가 참여하는 챔피언십을 만들자는 알란 한센 전 덴마크 축구협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신 지난달 29일 FIFA 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된 데이비드 길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사장이 제프 블라터 회장 연임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곧바로 사임한 것처럼 집행위 사퇴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총 26명으로 구성된 FIFA 최고 의결기구인 집행위에는 유럽 인사 8명이 들어가 있다. 일부 블라터 회장 지지 세력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수는 그 같은 제안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셸 플라티니 UEFA회장. /AP=연합뉴스

집행위 사퇴가 현실화되면 세계 축구계에서 유럽의 영향력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희철기자

강정호, 3경기째 침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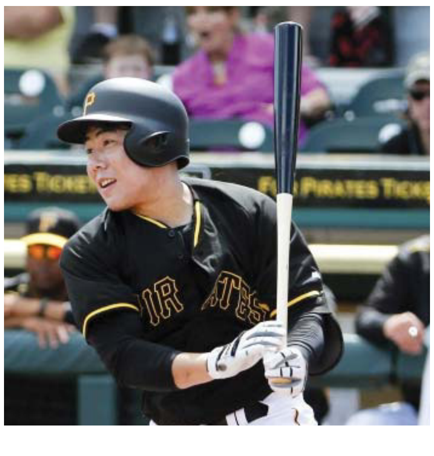
4타수 무안타로 경기 끝내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28·사진)가 3경기째 무안타에 그쳤다.

강정호는 2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AT&T 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원정경기에서 7번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두 차례나 삼진을 당하는 등 4타수 무안타로 경기를 마쳤다.

지난달 30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원정경기부터 3경기째 무안타다. 시즌 타율은 0.291에서 0.281(114타수 32안타)로 떨어졌다.

이날 강정호는 초반부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1회말 수비시 헌터 펜스의 강한 땅볼 타구를 잘 잡았지만 1루로 너무 높게 던진 탓에 실책을 기록했다. 메이저리그에서의 4번째 실책이다. 2회초 베테랑 우완 투수 라이언 보겔송과의 대결에서는 2루수 땅볼로 물러났다. 1-2로 뒤진 4회에는 2사 후 풀카운트 승부 끝에 우익수 뜬 공으로 잡혔다. 6회와 9회에는 삼진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피츠버그는 4-3으로 승리했다. /하희철기자




2일(한국시간) 빌트파크 스타디온에서 치러진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을 승리하고 기뻐하는 함부르크SV 선수들. /AFP 연합뉴스

손흥민 친정 함부르크, 분데스리가 극적 잔류

손흥민(레버쿠젠)의 친정팀인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함부르크 SV가 극적인 리그 잔류에 성공했다.

함부르크는 2일(한국시간)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칼스루에의 빌트파크 스타디온에서 치러진 올시즌 정규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칼스루에를 2-1로 꺾었다. 1차전 홈 경기에서 1-1로 비긴 뒤 1·2차전 합계 3-2가 되면서 53시즌 연속 1부리그 잔류에 성공하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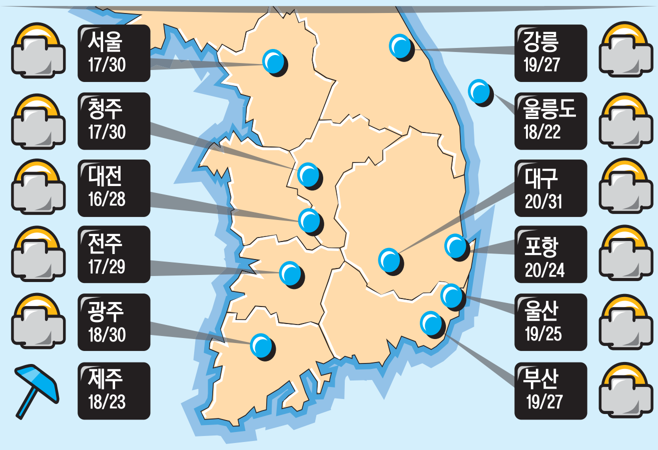
함부르크는 후반 33분 칼스루어의 레인홀트 야보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후반 추가 시간 마르셀로 디아스의 프리킥 동점골이 터지면서 연장전에 들어갔다. 연장 후반 10분 클레베르의 도움을 받은 니콜라이 뮐러가 골을 기록하면서 극적인 잔류 드라마를 연출했다.

/하희철기자

날씨

6/3 수 일출시각 05:12 일몰시각 19:4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7			2	
			4		8	7		
5			2					4
	9					4	5	2
		2		1		3		
6	5	3					1	
1					3			6
		8	6		1			
	3			8				

				4				
	3		5		2		1	
		4	3		1	9		
5	9	6				7	2	4
	4	8				5	3	
3	1	7				6	8	9
		5	7		3	8		
	8		4		6		9	
				8				

스도쿠 정답

3	8	4	1	7	9	6	2	5
2	6	9	4	5	8	7	3	1
5	1	7	2	3	6	8	9	4
8	9	1	3	6	7	4	5	2
4	7	2	9	1	5	3	6	8
6	5	3	8	2	4	9	1	7
1	4	5	7	9	3	2	8	6
9	2	8	6	4	1	5	7	3
7	3	6	5	8	2	1	4	9

1	5	2	8	4	9	3	6	7
6	3	9	5	7	2	4	1	8
8	7	4	3	6	1	9	5	2
5	9	6	1	3	8	7	2	4
2	4	8	6	9	7	5	3	1
3	1	7	2	5	4	6	8	9
9	2	5	7	1	3	8	4	6
7	8	3	4	2	6	1	9	5
4	6	1	9	8	5	2	7	3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Growing concern regarding easy going documentary investigation

<'성완종 리스트 6인'에 서면조사…황교안식 봐주기 수사 우려>

The prosecutors are being surrounded by questions regarding the investigation.

That is because they sent a written questionnaire to 6 people on May 28 under custody regarding Kyung-Nam Governor Hong Jun Pyo and former prime minister Lee Wan Gu.

Suspicion is being raised whether this is becoming a rerun of Hwang Kyo An easy going investigation or not.

The prosecutors' written investigation was made mainly to politic and economic big shots so far.

Most of these cases were put to an end because they were proven innocent. Prime minister nominee Hwang Kyo An is presently in charge of investigating Sung Wan Jong list as current Minister of Justice. The legal circle is arguing the effectiveness and suitability regarding the investigation.



검찰이 봐주기 수사 의혹에 휩싸였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세운 검찰이 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6명에게 지난달 29일 서면질의서를 보냈기 때문이다.

'황교안식 봐주기 수사'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간 검찰의 서면조사는 정·재계 실세들을 중심으로 이뤄져왔다. 불기소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 성완종 리스트 수사도 사실상 관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실효성과 적합성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PAGODA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재취업이 안돼 고민… 해외서 기회가 있을까요
해외선 시간 낭비·건강 상실…느긋함 가질 것

예쁜영혼 84년 11월 17일 음력 4시25분경

Q 선생님 지면을 통해 저와 생년월일이 같지 않아도 도움 되는 내용이 많아서 항상 꼼꼼하게 읽어보고 있는 애독자입니다. 2012년 8월에 지면을 통해 취업 운에 대해 여쭤봤었고 말씀해 주신대로 8월에 취업이 되어서 열심히 회사생활을 하게 되었으나 아쉽게도 작년 8월에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취업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걱정고민입니다. 삼재가 끝났는데도 취업이 어려우니 많이 답답합니다. 해외취업에도 관심이 많은데 운이 있는지요. 신경성 위염이 자주 오는데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생활해야 하는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A 쥐띠생(子:水수)이 말날(午:火불)에 태어났는데 오(午:말)는 거스른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불이 물을 거스르니 물과 불이 부조화 되어 내가 생(生)해주는 토기(土氣)인 식상(食傷)이 해를 당하여 신경성 위염이 발생됩니다. 늘 조급함이 있기에 설경설경 씹거나 급하게 먹는 습관을 고치도록 해보세요. 익히 들어 온 것이지만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감상적인 성향이나 예민한 사람들이 위장 질환에 노출되기 쉽고 건강보험관리공단의 통계로 매년 5%씩 위장질환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사주를 보건데 귀하는 오운육기(五運六氣)체질상 양명인 체질에도 해당 됩니다. 피부건조가 있고 약 먹는 것을 싫어하며 청양고추나 인삼, 술을 대체로 싫어하는데 육류를 싫어하면 태양인성 양명인 체질이고 돼지고기를 잘 소화 한다면 소양인성 양명인 체질이므로 식사할 때 오래 씹고 복부 마사지를 하고 특히 마음을 느긋하게 갖기 위해 기도를 하세요. 사주양간(陽干)중에 최고인 병화(丙火:태양)가 양인(羊刃:양의 날카로운 뿔)을 놓았으니 대단히 권위적이고 저돌성이 있으며 이상이 높습니다. 역학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병오(丙午)생일로 '정오의 태양'과 같이 한낮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형상이니 독존적(獨尊的)인데 직업인 자수(子水)를 도충(倒沖:끌어드려서 충살을 만듦)하므로 직장에서 타협이 어려운 면모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취업 운이 늘 있었으나 긴 장감이 부족하여 재취업이 안 되었다고 봅니다. 해외 취업 시 시간낭비 건강 상실이 올 것이니 실망하지마시고 덕필유지인(德必有之隣:덕을 베풀면 이웃이 있다)을 함께하면서 다시 상담 신청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6월 3일 (음 4월 17일) 사주스타(www.sajustar.com) 060-300-8400

쥐 — **48년생** 구설수와 언행을 주의하세요. **60년생** 옳지 않은 일에 어쩔 수 없이 관여하게 되니 마음만 아픕니다. **72년생** 막혔던 자금줄이 열리고 도움을 얻습니다. **84년생** 이성관계에 신중하세요.

소 — **49년생** 하루가 평화롭게 진행됩니다. **61년생**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73년생** 돈에 욕심을 부리면 길하지 못합니다. **85년생** 서두르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세요.

호랑이 — **50년생** 큰 돈 거래는 하지 마세요. **62년생** 금전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74년생** 직장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86년생** 업무적으로 바쁜 하루가 됩니다.

토끼 — **51년생** 좋은 사람이 일을 도와 크게 성공합니다. **63년생** 빛난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75년생** 늘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세요. **87년생** 이성을 가까운 곳에서 찾도록 하세요.

용 — **52년생** 자신의 매력을 한껏 발휘하도록 하세요. **64년생**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을 결정하도록 하세요. **76년생** 부업을 고려해 보세요. **88년생** 조그만 인연이 많은 날 입니다.

뱀 — **53년생** 예상치 못한 지출을 하게 됩니다. **65년생** 피로가 쌓여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습니다. **77년생** 마음의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89년생** 어려움이 알려져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말 — **54년생** 가족과 고민을 상의하세요. **66년생** 분수를 지켜 객관적으로 생각하세요. **78년생** 사업을 하면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90년생** 미뤄놨던 일을 계획해 보세요.

양 — **55년생** 서먹한 사람과 사이가 좋아집니다. **67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하세요. **79년생** 일거리가 밀려와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91년생** 급한 중 당신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원숭이 — **56년생** 새로운 발상이 많이 나오는 하루입니다. **68년생** 집중하기 어려운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80년생** 하는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92년생** 상대방을 조심스럽게 관찰해보세요.

닭 — **57년생** 주변의 유혹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69년생** 친구와 사소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81년생** 맛있는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93년생** 운은 좋으나 마음이 심란합니다.

개 — **58년생** 한발 물러서서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70년생** 집 밖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82년생** 사방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94년생** 사람이 하는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돼지 — **59년생** 자식들의 건강에 신경 쓰세요. **71년생** 답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83년생** 돈이 새는 것을 잘 확인하고 처리하세요. **95년생** 두 사람 마음이 한결같으니 밀고 나가면 좋습니다.

시내면세점 격전지 동대문, 그리고 제일평화상가

염지은의
유통바로보기

최근 패션 한류에 반가운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 내로라하는 재벌기업과 중견·중소기업들이 혈투를 벌이고 있는 서울 지역 시내면세점 격전지로 동대문시장 일대가 꼽힌 일입니다.

지난 1일 면세점 사업자 입찰을 마감한 관세청 서울지역본부엔 현대·삼성·SK·롯데·한화·신세계·이랜드 등 대기업 7곳과 하나투어·유진·파라다이스 등 중견·중소기업 14곳 등 모두 21개 기업(컨소시엄)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중 동대문시장을 후보지로 택한 곳은 대기업 2곳과 중견·중소기업 6곳 등 8곳이나 됩니다.

대기업 중엔 롯데·SK가, 중견·중소기업중엔 그랜드관광호텔·동대문24면세점(굿모닝시티 등)·동대문듀티프리(한국패션협회 등)·제일평화시장컨소시엄·중원면세점·키이스트 등이 동대문시장을 낙점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동대문시장을 지목한 이유는 면세사업 매출의 절반이 넘는 유커(중국인 관광객)를 공략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대문은 지난해 600만명 유커들이 명동에 이어 가장 즐겨 찾는 곳입니다. 중국인들은 한국 패션의 최고 바잉파워이기도 합니다.

동대문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최신 유행 패션을 볼 수 있는 곳으로 30여개의 도매 쇼핑몰과 약 3만개의 상점이 입점한 대한민국 패션 1번지입니다. 제조기반까지 갖춘 패션산업 집적지입니다. K패션의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는 서울패션위크의 주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곳에 면세점이 들어선다면 K패션은 더욱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기업들이 동대문시장을 면세점 후보지로 앞다퉈 지목한 일이 반가운 이유입니다.

특히 동대문시장을 지목한 면세점 후보 기업중 눈에 띄는 곳은 제일평화상가 소상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일평화컨소시엄입니다.

제일평화 컨소시엄에는 (주)제일평화의 기존주주 450명과 입점상인 1200명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클라우딩 펀딩형태로 면세점 투자소요자금 200억원의 60%인 120억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연간 4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제일평화상가는 야간 매출의 55%가 외국인 매출로 이중 절반 이상은 유커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커들을 상대로 한 영업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관리능력이나 경영능력 평가에서도 자신있다는 자체 판단입니다.

최근 증축 리모델링해 '동대문 제일면세점'이 들어설 제일평화상가 6,7층엔 약 80개 매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동대문시장내 자체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국산 의류 등 패션상품과 화장품, 주류, 토산품 등을 모두 판매할 계획입니다. 서울패션위크 같은 국내 패션대회에서 수상한 신진 디자이너들을 적극 키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세청의 특허 심사 기준인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는 물론 중소기업 제품 판매 실적, 기업이익의 사회환원과 상생협력 노력 정도 등을 모두 충족시키는 후보지인 셈입니다. 무엇보다 '조세수입을 포기해야하는 사업으로 수익금은 공익 목적에 써야 한다'는 면세점의 사업 취지와도 잘 부합합니다.

제일평화상가가 면세점으로 지정돼 동대문시장이 뉴욕, 밀라노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패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생활유통부장

산으로 가는 황창규 KT 회장

기자 수첩
양 성 운
<산업부 기자>

황창규 KT 회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았지만 기업 실적은 물론 이미지까지 갈수록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양새다.

'황의 법칙'으로 한 때 정보기술업계에서 이름을 떨쳤던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황 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고객 정보유출과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해 8000여명이 넘는 직원 감축, 민영화 이후 13년만에 첫 무배당을 선언해 주주들의 반발을 샀다. 기업의 실적은 물론 고객·직원·주주들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인 비전이나 발전방안보다는 인력감축 등을 통한 단기실적 부풀리기에 여념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향상됐지만, 이의 상당부분이 직원 대량 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 덕분이다. 일반직원은 1년사이 1만명 가깝게 줄었는데 임원 숫자는 되레 늘어났다. 하위직만 쥐어짠다는 불만과 함께 일자리 창출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목표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의 올해 3월 31일 기준 직원수(계약직 포함)는 2만3593명이다. 전년 같은 날(3만2379명)과 비교하면 8786명이 줄어들었다. 이 결과 KT는 직원 급여가 대폭 줄었다. 지난해 1분기(1~3월) KT의 직원급여 총액(임원 제외)은 5748억3900만원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4518억4100만원으로 낮아졌다. 직원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임금감소분이 1229억9800만원이다.

여느 기업들이 그렇듯 KT가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인원 감축을 선택하는 건 당연한 수순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고통은 기업 구성원 전체가 짊어지고 가야한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KT는 CEO나 이사들에게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의 연봉을 지급했다. 여기에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는 대규모 조직 개편과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으로 무배당을 선언했다. 결국 기업의 영업 손실을 직원과 주주들에게 떠넘긴 셈이다.

최근 KT가 주력으로 키우고 있는 사업을 보면 통신사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주력 사업은 뒷전이고 '부동산의 법칙'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정도다.

KT의 부동산 자회사인 KT에스테이트(KT지사와 소규모 부지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1년 새 두 배 이상 좋아진 반면, 통신 계열사들은 크게 악화됐다.

KT의 비통신 계열사 4곳 중 KT에스테이트의 올 1분기 매출액은 72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6.3%(102억원) 증가했다. KT캐피칼을 제외한 비씨카드와 KT스카이라이프도 각각 387억원, 212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반면 KT 통신 계열사의 올 1분기 매출액은 총 4012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4%(518억 원) 줄었고, 당기순손익은 33억 원의 적자를 냈다.

KT의 주력 사업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연구개발에 투자한 금액은 1835억원에 불과했다. KT는 본업인 통신업의 미래를 내다보고 사업을 정비하고 투자해야 할 때이다.



지난 4월 벤츠 소유주 이석훈(가명)씨는 운전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보배드림 제공

벤츠, 선루프 파손사고 잇따라

국내외 연이은 사고… 보증기간에도 수리비 청구

소비자 119

메르세데스-벤츠(Mercedes-Benz)차량이 주행 중 선루프(차 천장에 장착된 유리)가 이유 없이 파손되는 사고가 국내와 미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동차품질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운행 중 천장에 달린 선루프가 깨지면 차에 탑승한 사람이 부상을 당하는 것은 물론 다른 차와의 사고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2일 외신 디지털트렌드에 따르면 벤츠 GL550 모델 차주는 운전 중 갑자기 선루프에 큰 구멍이 생길 정도의 금이 간 것을 확인했다. 당시 주위에 다른 차량들은 없었다. 대리점에서는 이 차량이 보증기간 중인데도 차주에게 1800달러(한화 약 200만원)의 수리비를 청구했다.

벤츠의 선루프 파손사고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벤츠 GLK350 운전자도 GL550 소유주가 경험한 같은 선루프 파손 피해로 이 외신에 제보를 했다. GLK350 소유주도 운행 중 외부의 충격은 없었다고 전했다.

선루프의 파손 이유는 조립 공정의 문제와 외부요인도 있지만 차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 차 내외부의 극명한 온도차이 때문에 선루프가 깨질 수 있다고 외신은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파노라마 선루프같이 크기가 큰 유리일수록 주행 시 파손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현재 벤츠를 비롯한 자동차 업체들은 선루프에 기존 강화유리보다 탄성이 좋은 이중접합 유리를 의무 장착해야 하는 기준이 없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불안전한 강화유리를 사용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용기기자 yonggi@

인사

■ 국방부

△부이사관 승진 ▷기획관리관실 기획총괄담당관 김수삼 ▷군수관리관실 군수기획관리과장 이순택

■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강정구 ▷해양레저과장 권순욱 ▷원양산업과장 최현호

■ 고용노동부

△승진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영중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민석 △전보 ▷운영지원과장 최현석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김종윤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오기환 ▷고용정책실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 권진호 ▷〃 자산운용팀장 김영미 ▷〃 여성고용정책과장 김종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황선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 김명철 ▷〃 진주지청장 권병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 정영상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고용센터소장 정정식

■ 통계청

△3급(부이사관) 승진 ▷정보화기획과장 진찬우 △4급(서기관) 승진 ▷통계기준과 차진숙 ▷경제통계기획과 박원란 ▷인구동향과 김윤성 ▷정보화기획과 김우열 ▷경인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 황현식

■ 인천국제공항공사

△팀장급 전보 ▷에어사이드상업팀장 이상조 ▷구매계약팀장 최민아 ▷기획관리팀장 유구종 ▷T2운영준비단장 홍해철 ▷수하물운영팀장 지인열 ▷자산정보팀장 강성우 ▷운영총괄팀장 김기홍 ▷교통시설팀장 장용석 ▷접근교통혁신팀장 윤종택 ▷IAT운영팀장 서현호 ▷시설계획팀장 김성수 ▷토목조경팀장 신재호 ▷전력계통팀장 김한선 ▷공항계획팀장 조규혁 ▷안전품질팀장 이선구 ▷부대건물2팀장 이동주 ▷인사팀장 이종구 ▷센터운영팀장 조동주

■ LIG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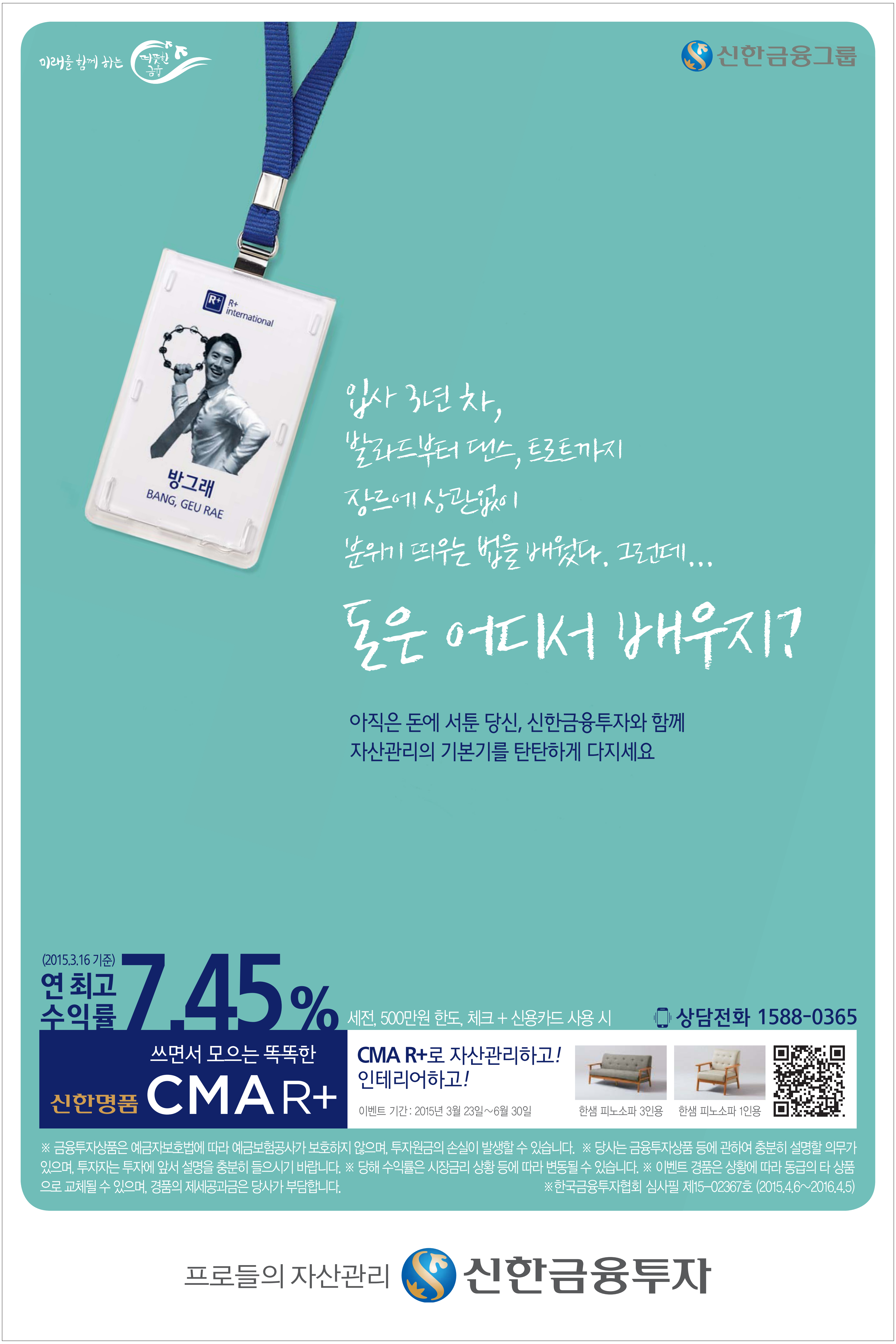
△부서장 선임 ▷감사팀장 박천규

■ 메리츠종금증권

▷금융투자사업담당 겸 인프라금융팀장 윤상준 ▷대체투자팀장 김원유

■ 동부화재

△임원 이동 ▷정보보호팀 상무 이근교 △임원 승진 ▷IT지원팀 본점팀장 손성구 △부서장 승진 ▷정보보호파트 부서장 안복남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R+ international
방그래
BANG, GEU RAE
입사 3년 차,
발라드부터 댄스, 트로트까지
장르에 상관없이
분위기 띄우는 법을 배웠다. 그런데...
돈은 어디서 배우지?
아직은 돈에 서툰 당신, 신한금융투자와 함께
자산관리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세요
(2015.3.16 기준)
연 최고 수익률 7.45%
세전, 500만원 한도, 체크 + 신용카드 사용 시
상담전화 1588-0365
쓰면서 모으는 똑똑한
신한명품 CMA R+
CMA R+로 자산관리하고!
인테리어하고!
이벤트 기간 : 2015년 3월 23일~6월 30일
한샘 피노소파 3인용
한샘 피노소파 1인용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벤트 경품은 상황에 따라 동급의 타 상품으로 교체될 수 있으며, 경품의 제세공과금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5-02367호 (2015.4.6~2016.4.5)
프로들의 자산관리 신한금융투자